



## 갑신정변 체험기 필사 원본의 발굴과 사료적 특징

---

저자 (Authors)	신동규
출처 (Source)	<a href="#">한일관계사연구 47</a> , 2014.4, 67-129(63 pages) <a href="#">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47</a> , 2014.4, 67-129(6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일관계사학회</a> The Korea-Japan Historical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I056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I0566</a>
APA Style	신동규 (2014). 갑신정변 체험기 필사 원본의 발굴과 사료적 특징. 한일관계사연구, 47, 67-129
이용정보 (Accessed)	동아대학교 39.113.137.*** 2020/04/25 14:4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갑신정변 체험기 『遭難記事』

## 필사 원본의 발굴과 사료적 특징\*

신 동 규\*\*

### 【국문초록】

본고는 갑신정변 당시 「漢城旬報」를 발간했던 이노우에 카쿠고로의 필사본 『遭難記事』의 발굴 경위와 그 사료적 특징 및 「時事新報」에 게재된 『遭難記事』와의 차이점을 고찰한 것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遭難記事』의 필사본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역사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본고에서 원문의 탈초문과 번역문, 그리고 그 가치를 발굴하여 소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기록은 그 어떤 민간인의 기록보다도 당시 일본공사관 관원과 경성 재주 일본인들의 탈출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 갑신정변과 일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료적 가치성이 내재되어 있다. 둘째, 이 필사본 『遭難記事』는 갑신정변 당시 민간인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는 가장 빠른 시기의 자료이며, 더욱이 「時事新報」를 통해 갑신정변을 가장 먼저 일본 국내에 알린 정보 루트로서의 역할도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필사본 『遭難記事』는 「時事新報」에 실린 『遭難記事』의 원 사료라는 점이다. 이것은 「時事新報」에 「井上角五郎氏歸京」의 기사가 실리면서 이노우에 카쿠고로가 경성을 탈출할 때 직접 쓴 ‘紀事’와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바로 「時事新報」의 『遭難記事』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고를 번역 집필하는데, 필사본 『遭難記事』(김승제 소장)를 제공해주신 한국우편사 연구가 정암 김승제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 【주제어】

갑신정변, 조난기사, 이노우에 카쿠고로, 시사신보, 한성순보

## ◆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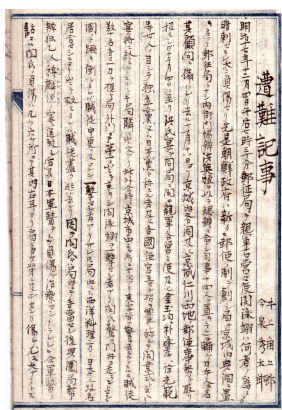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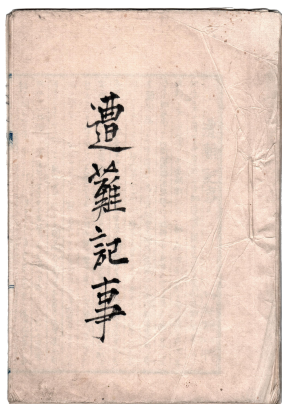
1. 머리말-필사본 『遭難記事』의 입수 경위와 「時事新報」의 『遭難記事』
2. 『遭難記事』의 번역문
3. 『遭難記事』의 원문 탈초문
4. 『遭難記事』의 진위와 사료적 특징
5. 맺음말

## 1. 머리말-『遭難記事』 필사본의 입수 경위와 「時事新報」의 『遭難記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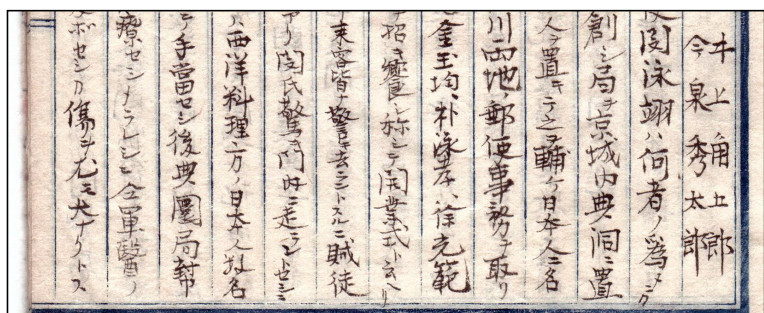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1884년 12월 4일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개화파였던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등이 일으킨 갑신정변의 생생한 체험기로서 학계에 필사 원본의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遭難記事』라는 사료의 내용 소개와 그 사료적 특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遭難記事』([자료1] 참조)는 22쪽 분량에 종이끈 제본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17cm×24.5cm로서 마지막 장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당시 경성의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당시 김옥균의 자택과 우정국 및 박문국 등 『遭難記事』에 보이는 지명 등을 붉은 글씨로 상세한 위치를 표기하고 있다.

갑신정변은 민씨 정권을 타파하고 청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자 일으킨 정변으로 국민주권국가 건설을 지향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다. 관련 연구는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관계 사료도 상당수 남아 있다. 그러나 공문서

가 아닌 민간의 체험기로서 갑신정변의 생생한 상황을 기록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타보하시 키요시(田保橋潔)가 『近代日鮮關係史の研究』의 연구에서 이용한 이노우에 카쿠고로(井上角五郎)가 쓴 『漢城之殘夢』이 있지만,<sup>1)</sup> 이것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7년 뒤인 1891년의 것이며, 더욱이 1888년에 카쿠고로는 갑신정변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내용이 미화 또는 생략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정변의 체험기로서 스가노 코이치(菅野宏一)의 기록도 이현중에 의해 「甲申政變 當時 서울과 駐韓日公館 撤收實記」<sup>2)</sup>라는 제목으로 학계에 소개되고 있는데, 『遭難記事』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 반면 상세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도 상당수 있다.



- 1) 이노우에 카쿠고로와 『漢城之殘夢』에 대해서는 金鳳珍, 「朝鮮の開化と井上角五郎-日韓關係史の「脱構築」を促す問題提起」(『東洋文化研究紀要』140,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2000), 참조.
- 2) 이현중, 「甲申政變 當時 서울과 駐韓日公館 撤收實記」(『亞細亞學報』1, 亞細亞學術研究會, 1965), 113-135쪽. 이 기록의 표지에는 「明治十七年十二月四日 朝鮮京城變動之折同政府郵征局に聘せられ居し和歌縣管野宏一氏が實地より仁川居留民地まで引揚したる直話」라고 되어 있을 뿐 특별한 제목은 없다.



[자료2-2] 『遭難記事』 내용 1페이지의 연명 부분 확대

그러나 『遭難記事』 필사본은 이노우에 카쿠고로와 이마이즈미 히데타로(今泉秀太郎)가 연명([자료2] 참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갑신정변 관련의 그 어떤 자료보다도 당시의 다급한 일본 측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갑신정변에 대해 일본 측에 보고된 최초의 기록으로서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론, 『遭難記事』의 내용은 일본의 「時事新報」<sup>3)</sup>에 1884년 12월 19·20일자로 「朝鮮事變」이라는 제하의 기사 속에 전문이 게재되고 있었지만, 필사 원본과는 약간 상이하다. 내용상으로 볼 때 거의 필사 원본의 내용을 토대로 「時事新報」에 기사로 게재되면서 수정, 또는 첨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검토해보겠지만, 어찌되었든 필사본 『遭難記事』는 「時事新報」에 잘못 게재된 『遭難記事』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의 학계에서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았던 사료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욱이 「時事新報」에 게재된 『遭難記事』가 학계에 알려진 것도 「翻刻 井上角五郎・今泉秀太郎의 甲申政變遭難

3) 「朝鮮事變」(「時事新報」, 1884년 12월 19·20일자). 『遭難記事』의 양이 많아 지면상 이틀간 기재됨. 한편, 「時事新報」는 1882년 3월 1일,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창간하였으며, 후에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출신자의 전면적인 협력 하에 운영되었다. 戰前 5대 신문 중의 하나이다.

記」<sup>4)</sup>의 저자 하라다 타마키(原田環) 스스로가 서두에서 “갑신정변 체험기로 처음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2007년이 되어서야 알려졌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遭難記事』 필사 원본의 발굴은 갑신정변 관련 연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에 본고에서 소개하는 『遭難記事』의 필사본의 입수 경위는 놀랍게도 온라인 경매에서 시작되었다. 즉, 2007년 4월 중순 경 일본 야후옥션의 경매물로 처음 나타났는데, 현재로서 판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년 4월 말경에 서울우표사의 안○○ 대표가 낙찰을 받아 한국으로 입수된 것이다. 우정국 관련기록이 있어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후 이 사료는 국내외에서 우표수집가인 동시에 한국 우편사 연구가로 널리 알려진 부산의 정암 김승제 선생이 2007년 5월 14일 서울우표사로부터 구입 양도받아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 김승제 선생은 귀중한 우취 사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구입한 것이며, 이를 2007년에 『우표』 잡지에 간단히 소개하였고,<sup>5)</sup> 이를 다시 선생의 회갑기념 저서인 『한국우편사료집』<sup>6)</sup>에 재수록하고 있다. 우편사적인 관심에서 郵征局 관련과 한성순보 부분을 소개하였지만, 일본의 근대 고문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2페이지로 일부분만을 소개하였다. 이에 평소 ‘부산우취회’의 후배 회원으로서 친분이 있는 필자에게 2013년 10월 말경에 필사본 『遭難記事』의 사료를 소개하며 역사적인 해석을 권유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서 필자는 본 사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우선 이 사료에 기술된 내용의 생생한 역동성에 다른 무엇보다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학계로의 소개라는 측면에서 사료 자체의 진위 여부 및 그 사료적 가치를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4) 原田環, 「翻刻 井上角五郎・今泉秀太郎의 甲申政變遭難記」(崔吉城/原田環, 『植民地の朝鮮と台湾-歴史・文化人類學的研究』, 第一書房, 2007).

5) 김승제, 「갑신정변 당시 『遭難記事』」(『우표』, 2007년 11월호), 26쪽.

6) 김승제, 『한국우편사료집』(뜨뜸출판사, 2013), 10-12쪽.

따라서 본고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 하에 『遭難記事』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遭難記事』를 탈초, 번역문을 소개함과 동시에 「時事新報」의 『遭難記事』와 비교 검토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료의 진위 여부와 함께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사료적 가치를 『遭難記事』의 기술 내용으로부터 도출해내는 것이다.

## 2. 『遭難記事』의 번역문

이노우에 카쿠고로(井上角五郎)  
이마이즈미 히데타로(今泉秀太郎)

### 1) 12월 4일<sup>7)</sup>

1884년(明治14)12월 4일 오후 7시 30분, 우정국에서 친군우영(親軍右營) 영사(營使) 민영익(閔泳翊)은 누군가에 의해서 몰래 찔려 크게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 조선정부는 새롭게 우편제도를 창설해 국(局)을 경성 안의 전동(典洞)에 두고, 우정국(郵征局)이라고 하였으며, 내위문협판(內衛門協辦) 홍영식(洪英植)을 총판(協辦)에 임명하여 사사(司事) 14명을 두어 그를 보좌케 하고 일본인 2명을 그 고문으로 앉혔다.

지난 11월 18일부터 경성 내의 각 동과 경성·인천 두 지역의 우편사무를 취급했는데, 12월 4일에 이르러 홍씨(洪氏)는 우정국에서 연회를 열어 친군(親軍) 각 영(營)의 영사(營使) 및金玉均(金玉均),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등 세인들이 평가하기를 독립당(獨立黨) 또는

7) 이 날짜는 본고에서 편의상 날짜 별로 내용을 분류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원문에는 없음.

일본당(日本黨)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각국 사관(使官) 등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고, 칭하기를 개업식(開業式)이라고 하였다. 연회가 곧 끝날 무렵에 우정국 옆의 산에서 불이 일어났다. 그 외에 동시에 경성시의 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문객들은 모두 놀라 가려고 하는데, 적도(賊徒) 수십 명은 칼을 들었고, 우정국의 문밖에서는 첫 번째로 나온 민영익에게 일격을 가한 자가 있었다. 민씨는 놀라서 문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턱에서 넘어졌고, 적도 중에서 또 다시 그에게 일격을 가한 자가 있었다. 그렇지만, 우정국 내에는 서양요리를 담당한 일본인 수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구하였는데, 적도는 모두 도망쳐버렸다. 따라서 민씨 등은 우정국 내에서 치료한 후에 전환국방관(典圜局幫辦)<sup>8)</sup> 독일인 뮐렌도르프(穆麟德)의 집으로 보냈고, 그 후에 일본 군의로 하여금 부상을 치료하였는데, 그 군의의 얘기로는 “민씨의 부상은 거의 6군데로 그중에서 오른쪽 귀에서부터 어깨에 걸쳐 등 에까지 이어진 칼에 의한 부상이 가장 크다. 다만, 각기 부상당한 곳 모두 출혈이 있어 생각건대 민씨의 생명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전하였다.

처음에 민씨가 우정국의 문을 나왔을 때,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은 금릉위부마작(錦陵尉駙馬爵) 박영효이며, 그 다음이 외위문(外衛門協辦) 김옥균, 다음으로 내위문참의(內衛門參議) 서광범, 다음으로 친군삼영영사(親軍三營營使) 윤태준(尹泰駿), 이조연(李祖淵), 한규직(韓圭稷) 등으로 홍씨는 우정국 안에 남아 있었다. 또한 중국영사 진수당(陳樹棠)은 우정국의 문에서 뒤로 돌아 국(局) 안에 이르렀는데, 뮐렌도르프(穆氏)는 그곳에 나와 있다가 함께 민씨를 간호하였지만, 박씨 이하 는 모두 도망쳐서 국왕폐하(고종)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폐하가 이 사변에 대해서 듣고 있을 때, 때마침 쉼 안에서도 폭발이 일어나 궁전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대략 두 번의 폭발이었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때문에 국왕폐하는 대궐에서 피해 우선 계동(桂洞)의 경우궁(景祐宮)<sup>9)</sup>으

8) 원문 그대로임. ‘방관’ 직의 한자는 원래 ‘幫判’임.



로 옮겼고, 후에 다시 계동궁(桂洞宮)<sup>10)</sup>으로 옮겼다. 그 궁은 4촌 왕친 이재원(李載元)의 집으로 궁 안이 상당히 넓고, 5층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 국왕폐하는 특별히 봉화를 올려 특유(特諭)를 일본공사에게 전해 일본공사로 하여금 동궁(同宮, 桂洞宮)에 오도록 하였다. 공사는 가지 않았다. 때문에 다시 박영효를 칙사로서 친필의 칙서를 공사에게 보내 참회(參會)를 재촉하였다. 공사 타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군이 이 칙서를 받자마자 그 호위병을 이끌고 입궐하였다. 이때 국왕의 옆에 있던 자는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윤태준, 이조연, 한규직의 제씨(諸氏)였고 그 외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친군의 모든 병사들도 또한 그곳에 있었다. 타케조에(竹添)군은 국왕의 초청에 따라 입궐하였는데, 어려운 시기인 때라 소동을 도와주지 못하고, 다른 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경위병(警衛兵)을 이용해 스스로 방비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가 오후 11시였다.

## 2) 12월 5일

같은 달 5일, 어젯밤 국왕이 계동궁(桂洞宮)<sup>11)</sup>으로 옮긴 이래 해방위 문독관(海防衛門督辦) 민영목(閔泳穆)이 와서 국왕폐하를 알현하기를 청하였는데, 폐하가 이를 허락하여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 후 조선인의 전문에 의하면, 문 안에 들어설 때 제1문에서 제5문으로 들어왔는데, 현관에 이르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자객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9) 원문에는 ‘景龍宮’. 1824년에 계동에 지은 순조의 생모 수빈(綏嬪) 박씨의 사당으로 정실왕후가 아니었기에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다. 『遭難記事』에 기재된 지명이나 건물명은 대부분 필사 원본에 첨부된 경성지도에 거의 표시되고 있다.

10) 흥선대원군의 조카 이재원의 저택으로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에 의해 고종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11) 원문에는 ‘桂宮洞’.

물어보니 내위문독판(內衛門督辦) 민태호와 조영하(趙寧夏)도 참내하다가 마찬가지로 살해되었고, 또한 좌영영사(左營營使) 이조연(李祖淵), 전영영사(前營營使) 한규직(韓圭稷), 후영영사(後營營使) 윤태준(尹泰駿)은 폐하의 어전에서 물러나 퇴출할 때에 마찬가지로 현관에서부터 제1문에 이르는 사이에서 살해되었으며, 이외에 내관(內官) 유재현(柳在賢)도 또한 살해되었다고 한다.

재작년의 난[임오군란]<sup>12)</sup> 후에 이 나라에는 두 종류의 정치주의가 생겼는데, 하나를 독립당(獨立黨), 또는 일본당(日本黨)이라고 하여 오로지 일본의 개명(開明)을 본떠서 조선의 개혁을 모색하고 독립국으로서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자들이며, 나머지 하나가 사대당(事大黨), 또는 시나당(支那黨)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구습을 지켜 중국에 의뢰하는 자들이다. 독립당은 박영효와 김옥균이 수장이고, 그 외에 수명이 있다. 또 일본에 왕래하는 자들과 일찍이 일본에 유학한 육군 생도 등은 대부분 이 당에 참가하고 있다. 그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단결력이 강하고, 실로 한 당으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고 있다. 사대당은 그 수가 많아 조선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이 당에 속해 있지만, 별로 결속력이 없어 격언에 비교하자면, 이른바 ‘아이들을 데리고 참배하는 것’<sup>13)</sup>과도 마찬가지로였다. 심지어는 당 내에서 늘 알력이 일어나 상호간에 사적인 권리로 다투기가 일쑤다. 때문에 독립당의 세력이 강하고 마침내 어젯밤의 사변에 따라 결국에는 정권을 획득하였다. 이에 이르러 5일의 조보(朝報)<sup>14)</sup>에서는 서목(叙目)<sup>15)</sup>을 행하겠다는 취지를 포고하였다. 이재완, 박영효, 김옥균, 신기선, 서광범은 승지가 되었고, 김씨는 혜상국당상(惠商局堂上)을 겸하며, 박영효는 전영영사(前營營使)로서

12) 이후 ‘[ ]’ 기호는 역자의 각주.

13) 참궁(參宮)은 신궁에 참배한다는 의미.

14) 조보(朝報)는 원래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을 매일 아침 적어서 배포하는 일.

15) 서목(叙目)은 새롭게 신임 관리를 임명하는 것을 말함.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을 겸하고, 서광범은 외위문협판(外衛門協辦)을 겸하여 그 사무를 대리하며, 변수(邊燧) 윤치호는 동 참의(參議), 홍영식은 좌우후의 삼영(三營)의 영사(營使)로서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을 겸하여 내위문협판(內衛門協辦)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의정(議政)에 임명했다. 의정은 소위 대신(大臣)이다. 이재원도 또한 의정에 임명하였는데, 병조판서(兵曹判書)와 같다. 그렇지만 재래의 관리는 대부분 모두 파면되었다. 오후 6시, 국왕폐하가 환궁하여 일본공사도 따라서 입내(入內)하였고, 조선친군이 왕국의 외곽을 경비하였다. 이때 전영(前營) 사령관 윤웅열도 또한 입내하였다. 야간에도 또한 국왕으로부터 서목(除目)에 대한 일이 또 있어 김옥균은 호조참판이 되었다.

### 3) 12월 6일

동 6일 아침, 길거리의 풍설을 듣자니, 어젯밤 중국 측 병영에서는 경성 내의 중국 상민에게 명하여 병기(兵器)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곧바로 중국병영에 집합하고, 또 병기가 없는 사람은 내일 중에 반드시 칼 하나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전달하였는데, 지난 밤 방어진 내측의 중국병영에 집합한 상민은 무릇 50명이라고 한다. 역시 생각한 대로 오늘 길거리에 보이는 중국인은 역시 병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원래 지난 4일의 사변 이래, 소생 등은 종자(從者) 후쿠시마 하루히데(福島春秀)와 함께 저동(苧洞) 박문국(博文局)에 있었는데, 낮에는 곳곳을 산책하고, 밤이 되어 이마이즈미(今泉)는 교동 일본공사관에 갔으며, 이노우에(井上)는 여전히 박문국에서 자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 5시 대궐에서 총성이 있었다. 따라서 소생 등 3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하고 있었을 때, 박문국의 국장 김만식으로부터 심부름꾼이 왔는데, 이노우에(井上)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지금 중국병의 장교 원세개(袁世凱)는 중국병사들을 이끌고 대궐의 서문(西門)으로부터 공격해오고 있으며, 동

시에 원씨는 성내의 중국 병사 및 중국 상인에게 명하여 일본인을 보면 죽여야한다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앙을 피해 스스로의 보전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은밀히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노우에는 이 보고를 듣자마자 같이 있던 두 명과 함께 거리의 셋길을 이용하여 일본공사관으로 가려고 하였다. 아직 길의 중간에도 미치지도 못하여 중국인 1명이 살해되어 그의 발에 포승줄을 묶어 조선인 다수가 모여서 이것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일의 위급함을 알게 되어 세 명 모두 칼을 빼들고 나와 동대문 사거리에 이르렀는데, 조선인 수십 명이 사방으로부터 3명을 에워싸고 돌을 던지기에 소생 등은 칼을 쳐든 채로 똑바로 사동(寺洞) 거리로 나아가 3정(丁) 정도를 달린 후에 옆길을 이용해 겨우 습격을 벗어났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관에 다다를 수 있었다. 소생 등은 모두 두 세 곳씩 돌에 맞았지만, 사소한 부상조차도 없어 실로 지극히 요행스러웠지만, 일본공사관에 들어가서 들으니 일본 상인으로 공사관 밖에 있던 사람과 공사관 직공(職工)으로 외출했던 사람 수십 명은 조선인 때문에 살해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때는 오후 6시 무렵이었다.

공사관에서는 공사 및 호위병은 모두 대궐에 갔기 때문에 관내에 남은 자는 병사 7명과 관리·직공에 지나지 않았는데, 관원 오바 에이세이(大庭永成) 군은 관내의 여러 사람을 통솔하고 부서를 이끌어 관내를 경비하였다. 이보다 앞서 다케조에(竹添) 군은 오바(大庭) 군에게 조심하라며 말하기를 나는 지금 왕명을 받들어 대궐에 가니 1개 분대를 남겨 본관을 지키고, 만약 폭도들이 침입해 온다면 칼과 총으로 방어하라고 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기관 시마무라 히사시(島村久) 군이 또다시 관원을 모이게 하여 오바 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화난(禍亂)이 본관에 미칠지 어떨지 예측할 수 없다. 관내의 부녀자와 유아는 모두 정관(正館)으로 이동하여 일이 급변하면 주검이 되더라도 추하게 욕됨을 남겨서는 안 된다. 또한, 여기 모든 관원들은 오바의 지휘

가 마치 공사의 명령과 같이 생각하여 반드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바로 모두 죽음을 맹세하고 각기 지켜야 할 곳에 위치하였다. 이때 대궐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공사 이하의 안부에 대해서 실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바 군은 관내를 돌아보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였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일사국은(一死國恩)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였다.

오후 7시 30분 난병(亂兵)이 와 앞뒤에서 공사관을 습격하여 총격이 잠시도 멈추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 타케조에 신이치로 군은 그의 경비병과 함께 공관으로 돌아와 관내에서 처음으로 ‘일본 만세’의 축성(祝聲) 부를 수 있었다. 전해 들리기에 대궐에서는 중국병사들이 동문(東門)으로 들어와서 왕궁의 바깥쪽을 공격하였고, 조선친군 또한 이에 부응해 일본병사들을 향해 함께 총을 발사하여 일본공사도 병사들로 하여금 이에 응사토록 하였으나, 병사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나빠 결국 방어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는 호위병과 함께 국왕폐하에게 공봉(供奉)하고 산으로 물러났다.

이때 대궐에 불길이 치솟았다. 이때 황후 민씨와 황태후 조씨는 서둘러서 왕궁을 탈출해 옥천궁(玉泉宮)<sup>16</sup>으로 납시었다고 한다. 국왕폐하는 일본공사와 함께 후원으로 물러난 후에 공사에게 이별을 고하고, 황태후가 있는 곳에 갔기 때문에 일본공사는 대궐의 서문에서 나와 북악기슭의 길을 취하여 제동(齊洞)에서 안동(安洞)으로 나왔다. 교동(校洞, 공사관이 위치한 곳)으로 오려고 했을 때 북병에게 요격을 당해 육군어학생(陸軍語學生) 우에노 모이치로(上野茂一郎)씨, 조장 모씨(某氏) 두 명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는 세 명이었다. 이때 공사관도 마찬가지로 또한 습격을 당하였다. 그 후 야간에는 별다른 사변이 없었는데, 다

16) 옥천궁(玉泉宮)은 아마도 창경궁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안쪽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옥류천이 있고, 여기에 놓인 다리가 옥천교(玉泉橋)이기 때문이다.

만 노상에는 조선인이 각처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좌우를 배회하고 있었을 뿐이다.

오후 9시 30분, 박문국(博文局)에서 불이 일어났다. 생각건대 소생 등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집, 그리고 장기간 사용해왔던 일상적인 집기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대궐을 태운 후, 제일 먼저 불을 붙인 것이 이 국(局)이었기 때문에 소생은 중국인이 「한성순보(漢城旬報)」에 한을 깊게 품고 특히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원래 박문국은 이노우에(井上角五郎)가 지 지난 겨울 처음으로 이 나라에 온 이래, 항상 거주하고 있을 곳이었다. 작년 가을 음력 11월<sup>17)</sup> 1일부터 관국(官局)이 되어 환관기계를 두고서 매월 3회씩 「한성순보」를 발간하여 통리외위문협판(統理外衛門協辦) 김만식(金晩植)<sup>18)</sup>이 그 국장을 겸하고 별도로 주사(主事) 1인, 사사(司事) 3인, 그 외에 속리(屬吏)가 매우 많았다. 그 순보(旬報)는 매호마다 3,000책을 발간하였고, 그것을 전국에 배포하였지만,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제40호의 발간에 착수했을 때, 때마침 이번 사변이 일어났다. 아아, 구차하게도 조선의 완고한 백성을 개도(開導)하여 천하의 대세를 알리려고 하여 스스로 순보의 편저를 총괄하였지만, 끝내는 그 효과도 없이 여기에 이른 것은 실로 세상에서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지사에게 부끄러운 것이다. 더욱이 이 순보는 중국 관민이 크게 미워하여 이번 늦봄 무렵과 같은 경우에 중국 관리는 공적으로 조선정부에 조회하고, 그 기사가 중국에 무리하다면 책망하였으며, 또 중국의 병사와 백성은 사사로이 이노우에를 암살하려고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박문국의 화재는 그렇다 치고라도 이노우에의 생존은 중국인에게는 유감이 될 만한

17) 「時事新報」에는 10월.

18) 원문에는 ‘金植’. 김만식(金晩植)은 1883년 8월 17일 신문발간을 위해 박문국(博文局)을 신설하고, 신문발간을 추진하여 10월 30일 『漢城旬報』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후 개화파 인사가 대거 몰락하였지만, 후에 예조판서를 거쳐 1894년 6월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일이다. 같은 날 11시에 이현(泥峴)의 일본 병영이 불에 타 사라졌다.

#### 4) 12월 7일

동월 7일 아침 일찍부터 우리 공사관의 호위대는 곳곳에 척후를 내 보냈고, 동시에 조선인으로 하여금 지역 내의 상황을 살피게 하였는데, 혹 말하기를 경성의 각 문은 일본병사의 출로를 끊기 위해서 중국병사와 조선병사가 함께 경비하고 있다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중국병사는 안동(安洞)에 정렬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내에는 양식이 이미 부족하여 실로 관내의 여러 관원으로 하여금 가마 속의 물고기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오전 8시 경위대(警衛隊)로부터 조심하라는 호령이 있었다. 관내 체원은 모두 준비를 하였는데, 10시에 김옥균의 집에서 불길기 일어났다. 이때 조선인은 총 또는 돌로 공사관 앞쪽을 남북 쪽에서 무릇 3회에 걸쳐 습격해 왔다. 매번 경위대가 총을 발사해서 물리쳤는데, 오후에 이르러 타케조에 공사는 중대장 보병대위 무라카미 마사즈미(村上正積) 군 및 관원을 불러 진퇴 여하와 그 의견을 물어 여러 가지 논의를 한 후에 타케조에 군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고 명령하여 말하기를, “중국병사의 나머지가 이미 대궐을 공격하였고, 조선병사들도 여기에 가담하여 본관은 고립되었으며 적의 전선 안에 들어갔다. 사령(使令)은 지금 거의 없어졌다. 여기에 있으면서 무리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천으로 가서 앞으로의 계획을 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국기를 철거하고 떠나자.”고 하였다. 같은 날 3시 30분에 관내의 일본인 모두가 드디어 관을 나와 인천으로 향하였다.

이 일행을 경위(警衛)하는 일본병은 거의 140명이었고, 그 외에 공사관원 및 그 가족(家屬)과 직공(職工)·상민(商民) 등이 함께 100여명으로 도합 250명이었다. 즉, 호위대 2소대는 선봉을 맡고, 무라카미(村上) 중대장은 중앙에서 앞뒤를 지휘하며, 2소대는 맨 뒤에서 적을 막으며

나아가고, 그 사이에 공사 이하 여러 사람들을 두고 교동(校洞)에서 나와 동대문 거리에 이르렀다. 다시 서쪽으로 나아갔는데, 무릇 갈림길이 있는 곳을 만나면 조선병사가 반드시 총을 발사하였고, 또한 그 인민이 혹은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선봉도 또한 총을 발사해서 이것을 물리쳤다. 그런 후에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는데, 구 대궐 거리 앞에 이르렀을 때, 친군좌영(親軍左營)의 병사 거의 500명이 정렬하여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향해 대포를 2회 발사하였다. 한 발은 엉뚱한 곳으로 발사되었고, 그 후에 또 소총을 연속하여 발사했다. 그렇지만, 일본병사의 사격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다. 따라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 서쪽 궁궐 앞에 이르러서 길을 꺾어 신문(新門-서대문)에 이르렀다. 문이 닫혀 있었다. 신문(新門)은 이른바 팔대문(八大門)의 하나로서 견고하다고 말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직공(職工) 수명이 도끼로 그 자물쇠를 잘라 쉽게 열어서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

이 문의 양쪽은 작고 높은 언덕을 이루고 있으며, 인가(人家)가 안팎으로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은 가장 곤란한 일이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길을 마포로 돌렸는데, 그다지 곤란은 없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저격을 만났다. 마포는 한강의 동안(東岸)에 위치하여 인가(人家)가 수백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어업을 하는 집이거나 농가였다. 호위대 사관의 말에 의하면, “전 부대가 모두 마포에 이르면, 그 지역의 인민(人民)은 반드시 우선 도망쳐서 강을 건너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배를 저을 수부(水夫)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사이에 배가 끊어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장사(壯士) 수명이 먼저 칼을 빼들고 마포로 가게 하여 수부를 붙잡음과 동시에 건널 배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때 스스로 기꺼이 칼을 빼들고 나아가 마포에 간 사람은 소생 등 두 사람과 그밖에 타나카(田中)<sup>19)</sup> 모씨가 있었다. 오바 에이세이(大庭永成), 카와카미 코레이치로(川上是一郎)<sup>20)</sup> 양씨가 총을 가지

19) 「時事新報」에는 ‘田村’.



고 이들을 호위하였다.

그리하여 소생 등이 마포에 이르렀는데, 인민 모두가 도망가서 없었다. 이에 따라서 소총수 2명은 배 8척을 준비하고, 칼을 가지고 있는 병사 3명은 각자 조선인의 집에 들어가 수부(水夫) 4명을 찾아내 확보하고, 전체 인원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강은 폭 3정(丁) 정도로서 이날 저녁은 얼음이 얇게 얼었고 만천(滿川)이었기 때문에 뱃길은 얼음을 깨면서 노잡이가 노를 잡아 처음으로 배를 보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전원이 이미 배가 건널 곳에 이르자, 견고한 배를 택해 타케조에(竹添) 공사와 경비 수행원 및 무라키미 중대장이 여기에 뒀으며, 수부(水夫)에게 노를 잡게 하여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 중류에 이르렀을 때, 근방에 있는 다른 배에서 복병이 나타나 우리 배를 저격하였다. 그렇지만, 제4소대가 강가 오른쪽 언덕 위에 복병이 있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것을 측면에서부터 총을 발사하였고, 또 배 안에서도 각각 총을 발사하였기에 드디어 무사히 전원 모두가 앞의 언덕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때 일본공사관에서 불이 난 것을 보았다. 때는 오후 6시 20분이었다. 공사관을 나와서 신문(新門)까지 소비한 시간은 1시간 10분, 또 신문(新門)에서 도강이 끝날 때까지 1시간 40분이었다. 이 사이에 일본 병사는 1명만이 부상했을 뿐이다.

여기에 불가사의하게도 죽음을 모면한 사람이 있다. 오쿠가와 카타로(奥川加太郎) 부처는 그 동생 후쿠다(福田) 모씨와 함께 경성 내 남촌(南村)의 식물공원에 거주하였는데, 때마침 6일 저녁에 이르러 켄내에서 총성이 들리자 폭민(暴民) 다수가 습격하여 공원 안으로 들어와서 카타로(加太郎) 형제를 죽였다. 그의 처는 놀라 도망쳐서 근처의 집으로 달려가 부엌에 숨었다. 이 여자는 용기를 겸비하고 있었고, 동시에 조선어를 약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여성<sup>21)</sup>과 같은 복잡

20) 「時事新報」에는 ‘川上立一郎’.

21) 원문에는 ‘韓女’.

으로 꾸미고 두발을 조선 풍<sup>22)</sup>으로 묶어 시기를 기다려 장차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오려고 했다. 7일 오전 8·9시 무렵부터 일본공사관에서 총성을 여러 번 듣고, 드디어 오후 3·4시 경에 이르러 그 소리가 점차 남대문에 가까워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자 (숨었던) 집을 나와 셋길로부터 남대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닫혀 나갈 수 없었다. 다만, 벽에 새끼줄 한 가닥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즉시 이것을 붙잡고 올라가 벽을 넘어 드디어 마포로 달려갔는데, 비로소 사민(士民)이 의심을 하게 되었고, 다수의 남녀가 서로 모여서 일본인 여성<sup>23)</sup>을 죽여야지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서로 욕을 하고 있었다. 곧이어 정말로 그 굴욕을 당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일본병사가 공사 이하 여러 사람과 함께 신문(新門)에서 나와 마포로 향하고 있어 그 앞으로 달려 나가 가까스로 마포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다행히도 조선인<sup>24)</sup>의 독수(毒手)를 피할 수 있었고, 공사 이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강을 건너 전술한 강가 언덕에 도착해서 후에 그 과정을 이야기 했는데, 듣는 사람 모두가 그 용기를 칭찬하였다. 이 여자는 다 죽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실로 요행이기도 하지만, 또한 천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아비와 헤어졌고, 동생은 죽어, 직녀와 같은 홀어미<sup>25)</sup>가 되어 의지할 곳을 잃어버렸다. 진실로 불쌍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 사망자는 수십 명으로 어느 누가 부모 아니겠는가. 또한 어느 누가 처자(妻子)가 아니겠는가. 이 부모처자도 또한 그 비애가 정말로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생각되어 여기에 이르러 소생 등은 눈물이 이 종이에 흘러내리는 것조차 잊고 있다.<sup>26)</sup>

22) 원문에는 ‘韓風’.

23) 원문에는 ‘倭女’.

24) 원문에는 ‘韓人’.

25) 원문에는 ‘嫠寡’.

26) 여기에서 이 종이에 흘러내리는 것을 잊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時事新報」에 실리기 전에 직접 필사한 원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현(泥岬)에 있는 한 사람은 조선인<sup>27)</sup>의 의복을 입고 6일 오후 5시경 일본공사관으로 도망쳐 왔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교동(校洞) 거리에 이르러 수표교(水標橋)를 지나자 그 근방에 있는 중국 상점에서 10명<sup>28)</sup>의 중국인이 나와 모두 일도(一刀)를 휴대하고 조선인을 지휘하였는데, 조선어로 ‘조선인이 아니라면, 일본 놈<sup>29)</sup>이다. 죽여야지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풀이하여 합창하였으며, 결국에 그 사람과 적대(敵對)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 가운데를 뚫고나와 공사관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공사관으로 도망쳐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 많은 중국인들은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을 요격하여 죽였다고 한다. 그러한 것은 어제 원세개(袁世凱)가 부하 및 중국 상인에게 명령하여 일본인은 관상(官商)을 논하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고 전했다는 것으로 실로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지만, 아마도 헛소문이 아닐까 한다. 중국인은 일본인에게 어떠한 원한을 품은 것이 있어 여기에 이르렀을까, 실로 일본 인민이라면 매우 분하여<sup>30)</sup>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소생 등이 어제 공사관에 가려고 했을 때는 중국인도 또한 조선인에게 습격당해 결국에는 살해당할 뻔한 자도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생각컨대 이전에 조선인에게 원한을 산 자로서 그 무리 때문에 살해된 것일 것이다. 결코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조선인으로 하여금 성내의 모습을 살피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중국인의 시체를 본 적이 없었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중국 상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은 수표교 근방으로 수표교 밖의 일본인만이 많이 살해된 것을 보더라도 또한 중국인이 직접 또는 교사(敎唆)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생 등도 또한 수표교 밖에 있었지만, 도망쳐서 공사관에 이르렀는데, 길을 우회

27) 원문에는 ‘韓人’.

28) 「時事新報」에는 ‘十名’을 ‘十數’로 표기.

29) 원문에는 ‘倭奴’.

30) 원문에는 ‘切齒扼腕’.

하여 장교(長橋)를 넘어 소로(小路)에서 사동(寺洞) 거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국 상인 등의 습격을 면하였고, 그저 단지 조선인에게 습격당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것 또한 우연의 행운이다.

마포에서 한강을 건너 올라가 그곳에서부터 나아가 인천으로 향하려고 했을 때, 날은 이미 저물어 길은 어두워졌고, 또한 눈이 내려 바람도 강하고, 특히 여러 사람 모두가 얇은 옷만으로 겹쳐 입지 않았다. 한강까지는 용감한 위세로서 추위를 깨닫지 못했지만, 이곳에 이르러 추위를 느꼈고, 또 차츰 앞으로 나갈수록 점차 추워져 가는 곳마다 길가의 잡초와 쓰레기를 태워 따뜻하게 했음에도 결국에는 그 효과도 없었으며, 단지 일시적인 몸의 회복에 지나지 않았다. 부인과 어린아이, 특히 부상자의 고통을 살피야만 했다.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소생 등은 우리의 동포 3,700만 명으로 하여금 이 고통의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다. 야밤중인 12시에 오리동(梧里洞)에 도착하였다. 오리동은 경성과 인천 두 지역 사이의 큰 역으로서 인가(人家)가 대략 10여 호(戶)가 있지만, 그 주민은 도망쳐서 집에 없었다. 때문에 식량을 사고 물을 구하기가 편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털끝만큼이라도 침해해서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 때문에 혹은 빈 집에 들어가 눈을 피해 기다리거나, 혹은 불을 피워 온기를 취하였는데, 거의 1시간 정도가 지나 또 앞으로 나아가 인천으로 향하였다. 이 때 소생 등은 추위를 참지 못했다. 왜냐하면 소생 등은 박문국에서 공사관으로 도망쳤을 때 이미 얇은 옷으로서 우리 편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sup>31)</sup> 특히 얇은 복장이었기 때문이다. 두 명이 서로 끌어안아 온기를 취하였는데, 결국에는 의논하여 각자 마른 풀을 뒤집어썼다. 제2소대장 오니시(大西) 중위가 이를 평하여 말하기를, “『團々珍聞』<sup>32)</sup>의 戲畫도 또한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마

31) 원문에는 “吾が同勢に比して”.

32) 『團團珍聞』은 1877년부터 1907년까지 일본에서 간행된 戲畫 수록의 시국

이즈미(今泉)<sup>33)</sup>가 이것에 답하여 말하기를, “소생은 훗날 이렇게 이상한 복장을 행한 사람으로서, 또한 더욱더 이상한 복장을 하여 고통을 받았는데, 후에 이를 합쳐서 『團々珍聞』의 그림으로 그려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밤 소생의 이상하고도 또 이상하다<sup>34)</sup>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하였다.<sup>35)</sup>

곧 성현(星峴)에 도착하려고 할 때, 인천영사관으로부터 심부름꾼이 도착했다. 때는 이미 새벽닭이 울고 난 뒤였다. 지금 그 사람의 말한 바를 약기(略記)하여 말하자면, “지난 5일 경성으로부터 인천으로 보낸 서장은 영사관에 도착하였지만, 그 후 소식이 없었다. 때문에 조선인을 심부름꾼으로 하여 서장을 경성에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에 이르러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고,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경성에 가려고 하여 이곳까지 왔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난 6일 오후 치토세마루(千歳丸) 선박이 부산으로부터 입항하였다.”고 한다. 거의 성현(星峴)에 다다르려고 할 때 진눈깨비가 내려 보행이 대단히 어려웠지만, 성현을 넘어섰을 때는 하늘도 맑아져 달이 떴다. 어느 정도 경과하자 인천까지 1리(里) 정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영사관으로부터 말과 가마를 보내 타케조에 공사 및 시마무라(島村) 서기관을 맞이했는데, 소생 등은 이때부터 빠른 보행을 시작해 전체 인원보다 앞서서 같은 달 8일 오전 6시에 인천에 도착했다. 경성에서 인천에 이르는 사이가 거의 7리(里)였고, 시간은 거의 15시간을 소비하였다. 상당히 지체하였지만, 한 가지 이유는 눈이 쌓여 길이 나빠 보행이 어려웠고, 또 하나는 부인과 어린아이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른 것이다. 모든 인원 전부가 인천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다고 한다.<sup>36)</sup>

---

풍자 잡지이다.

33) 「時事新報」에는 ‘今泉秀太郎’.

34) 원문에는 “異裝未だ異裝”.

35) 원문에는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며, 원문의 문장 첫머리 하단에 순서를 한자의 숫자로 표기함.

## 5) 12월 8일

8일<sup>37)</sup> 오전 중에 경성으로부터 철수해온 것은 총원 250명, 모두 인천항 제물포의 거류지에 도착하여 타케조에(竹添) 공사 이하 일본공사 관원은 영사관에 체재하였고, 소생 등은 미즈비시(三菱) 기선숙(汽船宿)의 후쿠시마 토모키치(福島友吉)의 숙소에 머물렀다. 호위병 1중대는 한데 모아 숙박할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1분대씩 나누어 여러 상점에서 숙박을 취했으며, 중대본부는 서양 주점과 서양 일용품점을 하는 호리히사(堀久)의 집으로 정하였다. 한편, 인천에서는 타케조에(竹添) 공사 이하 여러 사람이 경성으로부터 철수해왔다는 것을 듣자, 영사관은 말할 것도 없고, 거류 상인 등 대부분 모두가 혹은 음식을 길가에서 대접하여 여러 사람을 위로하였고, 혹은 영사관에 모여 타케조에(竹添)군 이하를 기다릴 준비를 하였다. 또한 미리부터 자신의 집과 일신(一身)만을 위해 비상용품을 준비하는 등의 혼잡은 없었다. 일본병사는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거류 지역의 각처에 주둔하여 더없이 엄한 경비를 하였으며, 일본군함<sup>38)</sup>으로부터도 또한 수병 약간 명이 상륙함과 동시에 대포 2문을 끌어 올려 이것을 거류지역 내의 요처에 배치시켰다. 오늘 인천항 내에 정박하는 군함은 우리의 닛진함(日進艦)과 영국 포함(砲艦) 에스포일 2함으로서 그 외에 미즈비시 기선(三菱汽船)이 있었다. 소생 등은 인천에 도착해 후쿠시마<sup>39)</sup>에 머물렀지만, 의복은 얇고 또한 축축하였으며, 신발은 없었고, 수건도 없어 이것을 구

36) 12월 8일까지의 기사가 「時事新報」 12월 19일자 신문에 실렸고, 9일부터는 12월 20일자의 신문에 실리고 있다.

37) 「時事新報」에는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 8일의 기록부터 「時事新報」 12월 20일자 신문에 『遭難記事』 2회분의 기사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알기 쉽게 '12월'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38) 논문에는 '日本軍艦日進艦'.

39) 후쿠시마야(福島屋)를 의미함.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얻지 못했다. 때문에 편지 한 통을 치토세마루(千歲丸)의 선장 츠지카쿠 사부로(辻覺三郎)군에게 의탁하여 그 이유를 알렸는데, 츠지카쿠(辻覺) 군이 곧이어 상륙하여 소생 등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또한 의복과 이불 등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때의 이 은혜 또한 무엇으로서도 사의를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함으로써 영구한 기념으로 갖추어둘 뿐이다. 오늘은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래 제작년의 난(임오군란) 후에 조선인은 일본을 심하게 두려워하였으나, 중간 무렵부터 크게 일본 문물을 우리러 사모하였다. 이른바 사대당(事大黨)이라고 명명하고, 중국의 위세를 빌려 사권(私權)을 제멋대로 부리는 자들 이외의 고위 귀족관리는 일본인의 개혁과 진보에 힘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였다. 일본인의 착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사랑하여 하위의 상·공·사역(商工使役)에 이르러서는 일본인은 거칠고 난폭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고, 신의 없는 중국인을 미워하여 실로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인에 대해 ‘우의(友誼)의 념(念)’을 생기게 하는 것은 당시 이 나라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는 바이다. 지난 11월 2일, 타케조에 공사는 국왕을 알현하여 상금 50만불 중에서 40만불을 반납했기 때문에 조선관민은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였다. 그렇기에 이번에 일본 병사가 중국 병사에게 공격받은 것을 듣고 나서 조선인도 또한 일본인의 집을 불태워 훼손하고, 또 일본인으로 보이면 남녀의 구별 없이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다.

이보다 앞서 민영익은 구미 각국을 회람(回覽)하고 이번 봄에 귀국하였는데, 그 후에 오로지 병제(兵制)에 신경을 써 특히 충의병(忠義兵)이라는 것을 계획하였다. 동씨(同氏)의 주장에서 말하기를, “구미 각국은 모두 ‘미리시아(勇義兵)’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상비군 외에 국가에 일이 있다면 그것에 임해 군(君)에게 충(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나라도 또한 이 병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동지가 서로 결탁하고, 또 부상(富商)과 호농(豪農)으로 하여금 다소의 금액

을 거출하여 내는 것을 모두 ‘계(契)’라고 칭하는데, ‘계’라는 것은 조선어<sup>40)</sup>로 ‘콘페니(コンペニイ)’<sup>41)</sup>의 의미이다. 무뢰(無賴)한 도당, 유식(遊食)<sup>42)</sup>의 무리 1,000여명을 집합시켜 여기에 다소의 급여를 주고, 또 용역에 충당시키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얻어 이것을 충의병(忠義兵)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렇지만, 국왕 및 근신(近臣) 여러 명은 이미 그것을 이유로 들어 문벌<sup>43)</sup>로서 피하여 이상하게 나오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금지하고 해산시켰는데, 민씨(閔氏)는 겉으로는 명을 받들고, 속으로는 이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 이르러서는 위의 충의병(忠義兵)에게 마르티니 총 1정씩을 배급하여 소지케 하였다. 그러나 국왕을 꺼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복은 상인(常人)의 옷을 입히고, 또한 조련(操練)시키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지난 4일에 민씨(閔氏)가 부상을 당하였고, 조사해보니 그 일족이 많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이들 충의병(忠義兵) 모두가 크게 화가 났는데, 그중에서도 민씨(閔氏)의 가신(家臣) 이두현(李斗鉉)이라는 자가 그들의 대장이 되어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고 중국 병사들과 결탁하였으며, 여기에 또한 반인(洋人)<sup>44)</sup>이라고 하는 자들이 참가하여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한 마리의 개가 허공에 짖으니, 만 마리의 개가 이를 따라하는 것이다. 실로 우민(愚民)의 시기에 편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조선인도 또한 일본인을 해치고 있다고 하지만, 제일 앞에서 부르짖는 자<sup>45)</sup>는 충의병(忠義兵)이라고 한다. 반인(洋人)은 또한 별초군(別抄軍)이라고도 칭한다. 성 안의 도우자(屠牛者)<sup>46)</sup>에서 가려 뽑은 자들로서

40) 원문에는 ‘韓語’.

41) 원래 일본어로는 ‘コンパニー(company)’이며, 교제·회합·회사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회합’의 의미.

42)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 것을 의미하며, ‘무위도식(無爲徒食)’과 같은 의미.

43) 원문에는 ‘門地’.

44) ‘洋人’은 대대로 성균관에 딸려 주로 쇠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

45) 원문에는 ‘首唱たりし者’로서 제일 선두에서 부르짖는 자를 말함.

46) ‘屠牛’는 소를 도살하는 사람.



친국의 4영(營)에 각각 50명을 분배하여 예속시켰다. 중국병사가 대궐을 공격했을 때, 먼저 여기에 참여한 것도 또한 이들 반인(洋人)으로 다시 말하자면 별초군(別抄軍)이라고 한다. 위의 내용은 인천에 재류하고 있을 때 조선인으로부터 들은 바이다. 기록하여 참고로 제공한다.

## 6) 12월 9일

동 9일 오전, 경성의 중국 병영에서 일본공사에게 한 명의 심부름꾼을 보낸다고 한다. 동 11시 45분, 인천에 재류하는 중국영사 김씨(金氏)가 와서 일본영사관을 방문하였다. 이때 호위대에서는 조심하라는 호령이 있었고, 각각의 요지에 나열하고 있었기에 항구 내에서는 상당한 소요가 있었다. 전해 듣기로 오늘 오전 뮐렌도르프(穆麟德)는 인천의 세관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 사람은 재작년에 와서 조선정부의 관리로 근무하다 그 국민이 되었고, 의복을 새롭게 조선인과 같이 입고 있지만, 이번에는 다시 양복을 입었으며, 또한 머리를 잘라 원래의 게르만 사람<sup>47)</sup>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목씨(穆氏)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 전하는 말이 있는데, 그 대략을 말하자면, “경성은 인적<sup>48)</sup>이 점차 수그러들었고 중국 상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게 문을 여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소생 등이 생각해 보니, 지금의 변동은 거의 조선인이 중국인에게 교사를 받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오후 5시 무렵, 조선정부의 새로운 외무독판(外務督辦) 조병호(趙秉鎬) 이외에 한 명이 경성에서 인천으로 왔는데, 타케조에(竹添) 공사와 면담을 한 후에 돌아갔다. 오늘 저녁, 일본 상인 한 명이 경성에서 도망쳐 왔다.

47) 원문에는 ‘日耳曼人’로 게르만 인을 의미.

48) 원문에는 ‘人氣’.

## 7) 12월 10일

동 10일 오전, 서양인 3명과 일본 상인 3명이 경성에서 도망쳐 왔다. 오후에 이르러 일본병사로서 경성의 미국공사관 및 영국총영사관을 호위하는 4명 “4일 밤, 우정국 소동에 이어 왕궁 안에서도 폭발이 있었다. 국왕은 드디어 계동궁(桂洞宮)에 행행하여 난을 피하는 등 위급의 시세가 닥쳐왔기 때문에 미국공사 후토씨와 영국총영사 어스톤씨로부터 각기 급사(急使)를 우리 공사관에 달려 보내, 조선국왕의 사례에 준거하여 공관경비를 위한 호위병 일부분을 차용하고 싶다는 간절한 의뢰가 있었지만, 공사관에서는 이미 타케조에(竹添) 공사가 과반의 병사와 관원을 인솔하여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간 후에 부재중의 번병(番兵) 인원이 매우 적어 의뢰한 대로 충분한 인수를 나누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위급함의 변통으로서 미국공사관에는 4명, 영국공사관에는 2명의 병사를 대여하게 되었다.”<sup>49)</sup> 그밖에 미국공사관에 고용된 일본인 및 동관으로 도망쳐온 일본상인을 합쳐 15명은 중국병사에게 보내져 인천으로 돌아갔다. 그 중에 부인 한 명이 있었다. 이 부인은 혼다 슈노스케(本多收之助)의 처로서 혼다는 경성에서 사진을 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부부에게는 자녀 두 명이 있었다. 한편, 일본병영이 있는 이현(泥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모와 자식 4명이 모두 살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남편 혼자만 죽고 나머지는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것은 오쿠가와와 처에 비할 정도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오늘 저녁 미국공사, 영국총영사와 더불어 독일영사가 함께 인천에 왔다.

오늘 경성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이 있었다. 첫째는 지난 8일 조선정부는 새롭게 남대문에 게시하여 함부

49) 이 따옴표 부분은 필사본 『遭難記事』에 기록된 그대로이며, 문장이 삽입된 부분임.

로 일본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왕은 도망쳐서 중국병영에 이르렀고, 중국병사는 그를 보호하여 대궐에 들어가 엄중하게 호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병사의 사망자는 30명, 조선병사의 사망자는 16명이고 또한 조선과 중국의 양국민은 꽤 다수라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넷째, 지난 8일에 홍영식은 중국 병영에서 공개적으로 참수 당했다고 한다. 다섯째, 민영익은 중국병영에서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여섯째, 일본인의 주택은 관상(官商)과 다름없이 전부 불태워졌고, 특히 박문국 같은 곳은 전부 불태워져 재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한다. 일곱째, 사변 이전의 관리는 모두 이전의 직책으로 회복시킨다고 한다. 여덟째, 영미공사영사관은 습격당하는 일 없이 또한 중국병사에 의해 보호받았다고 한다. 아홉째, 중국영사관은 지극히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 사망자는 병사 2명, 육군어학생 1명, 상인 무려 20여명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자 또한 적지 않다. 이소바야 신조(磯林眞造)<sup>50)</sup>는 육군참모 대위로서 앞의 육군어학생 1명과 종자 1명을 수행하고 강원도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동군(同君)은 다년 간 조선에 있었기에 알고 있는 조선인들이 많고 조선어를 잘 하며, 또한 여러 번 내지에 여행하고 있어 국내의 풍속기질도 잘 알고 있다. 조선인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인망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의 소동에서도 단지 그가 경성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것뿐이지, 중국병사 또는 조선 충의군(忠義軍) 등의 눈에 띄지 않으면 결코 살해될 염려는 없다. 아마도 동군(同君)은 내지에서 경성의 변을 듣고, 그곳에서부터 최근의 개항장을 향해 잠행

50) 원명은 이소바야 신조(磯林眞三, 1853~1884). 메이지시대의 군인으로 1883년 공사 하나부사 요시토모(花房義質)를 수행하여 한국에 와서 공사관부(公使館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884년 12월 7일 외출 중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는 길에 사망.

해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노우에(井上)는 평생 동안 그와 교우가 두터워서 특별하게 그의 무사를 기원하고 있었다.

(오늘 상당히 애끓는 일화를 들었는데, 별일은 없었다.)<sup>51)</sup> 지난 6일 밤, 중국병사가 대궐의 동문으로 들어와 왕궁 호위의 일본병사를 습격하였고, 일본병사도 또한 이에 응전하게 되었는데, 조선의 친군(親軍)도 중국병사에 따라 특히 별초군(別抄軍)은 뒤로 돌아와 우리 병사의 측면에서 소총을 겨누는 형국이었는데, 배후의 적으로 인해 우리 병사도 왕궁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후원의 산으로 퇴각하려고 하였다. 이 때, 황후(왕후),<sup>52)</sup> 황태후(왕태후)도 함께 이미 어디론가 피신하셔서 궁내에 계신 분은 오직 국왕폐하뿐이다. 폐하는 우선 후원의 산으로 피신하였고, 다케조에(竹添) 공사도 또한 이곳에 왔다. 박영효, 김옥균 등을 시작으로 대신도 모두 [폐하의] 측근에 있었지만, 이때 중국병사의 총탄은 높은 곳을 겨냥했는지 옥좌 가까운 곳에 날라 와서 대신 중에 유탄에 맞아 즉사한 자가 2명 있었다. 국왕은 오로지 황태후(왕태후)와 같은 곳에 있었는데, 죽더라도 유감은 없다고까지 간망(懇望)함에 따라 지금은 대신 등도 진언하기 어려워 마침내 타케조에(竹添) 공사에게 국왕은 이별을 고하고,<sup>53)</sup> 옥천궁(玉泉宮) 쪽을 향해 출발하려고

51) 괄호 부분은 원문에 없고, 「時事新報」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遭難記事』를 필사할 때에 들었던 내용을 기사에 삽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時事新報」의 토대가 되는 것은 본고에서 소개하는 『遭難記事』 필사본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52) 필사본 『遭難記事』와 「時事新報」의 『遭難記事』에는 황후, 황태후로 되어 있으나, 하라다 타마키(原田環)의 번각본에서는 이를 왕후, 왕태후로 수정하여 표기하고 있는데(原田環, 앞의 논문), 이는 원문을 그릇되게 이용한 것이다.

53) 원문에는 “今は侍臣等も諫め兼ね遂に<sup>三</sup>別を告げ、竹添公使に<sup>二</sup>國王は玉泉宮の方を指し出立ち玉はんとするに<sup>一</sup>臨み…”로 순서가 정해져 있으나, 「時事新報」에는 “今は侍臣等も諫め兼ね遂に添公使に<sup>二</sup>を告げ、王は玉泉宮の方を指し出立ち玉はんとするに<sup>一</sup>臨み…”로 되어 있다.

하는데, 뒤를 따르고 있던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등이 국왕 앞으로 나와서 “신들이 모색한 일이 잘되지 않았고,<sup>54)</sup> 중국병사들에게 공격을 받았으며 친군(親軍)에게 배반당해 결국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신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폐하가 행행(行幸)하시려는 곳에 호위하여 따라가서 단지 죽음으로서 목숨을 바쳐야만 합니다만, 신 등이 또한 잘 생각해보니 한 차례 폐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아직 신들이 죽음으로써 성은에 보답할 때는 아닙니다. 굴욕을 참고, 죽음을 아껴두어 견인(堅忍)으로써 크게 후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의정 홍영식을 남게 하여 공봉호위(供奉警衛)의 임무를 맡기고 신 등은 지금부터 휴직을 얻어 잠시 몸을 숨기고 난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용안을 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언하였다. 국왕은 박·김<sup>55)</sup> 등에게 말하기를, “오늘의 형세는 짐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곳을 모르겠다. 너희들은 어디서 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가.”라고 하였다. 박·김 등은 답하여 말하기를 “홍영식으로 하여금 폐하에게 공봉하도록 하는 것은 만약에 중국병사가 오더라도 결코 위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하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신 등은 그 어떠한 고생을 겪더라도 맹세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박·김 등과 이하의 모두가 국왕 앞에서 하직 인사를 하였다. 국왕은 눈물을 흘리셨고, 박·김 등 모두가 울었다. 대신 일동이 차마 우러러볼 수가 없었다. 옆에 있던 일본인까지도 함께 울었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국왕은 중국군 쪽으로 들어갔고, 홍영식은 공개적으로 참수되었던 것이다. 홍영식은 원래 사대당과 상당히 친하여 이 사람이라면 아마도 살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홍씨도 결국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여 불쌍하게 되었다. 또한 박영효는 그 후 사대당 때문에 붙잡혔고, 김옥균은 아직 소재를 알 수 없다는

54) 갑신정변의 실패를 의미함.

55) 박영효와 김옥균.

풍설이다.

## 8) 12월 11일~18일

동 11일 오전 7시 30분<sup>56)</sup> 치토세마루(千歳丸)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나가사키(長崎)항으로 향하였다. 배 안에는 일본공사관의 관원 키노시타 나오히로(木下直弘) 군이 있었다. 군은 타케조에(竹添) 공사의 상신서를 가지고 도쿄(東京)로 돌아갔다. 그밖에 부상자 8명과 부인, 소아 등 무릇 150명, 서양인 수명과 소생 등이다. 항해 중에는 파도는 잔잔했으며 동 13일 오전 9시 30분에 나가사키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부터 겐카이마루(玄海丸)를 타고 나가사키를 출발하였고, 고베(神戸)에서는 와카우라마루(和歌浦丸)로 갈아타 18일 오전 1시 요코하마(横濱)에 도착하였다.

## 9) 12월 11일 아침에 들었던 피해 상황

또한 지난 11일 아침, 인천을 출발할 때까지 들었던 이번 사변에 대해서 사망자 및 생사를 알 수 없는 자는 무릇 30명이다. 카나이로 료닌(金色良忍), 아이지마(相島) 모씨는 김옥균의 집에 있다. 야마다 슈조(山田修三) 이외에 5명은 회동(會洞)의 양기정(養氣亭)에 있다. 우라세(浦瀬) 모씨 이외에 2명은 같은 곳의 후쿠시마야(福島屋)에 있다. 이상 모두 지난 6일 저녁이 다되어 일본공사관으로 오려는 도중에 조선인에게 기왓장으로 맞아죽었고, 이외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상인이 45명이라고 한다. 혼다 슈노스케(本多收之助),<sup>57)</sup> 오쿠가와 카타로(奥川加太郎)

56) 「時事新報」에는 20분.

57) 「時事新報」에는 ‘本多收之輔’.

및 카타로(加太郎)의 동생 한 명은 중국인에게 살해되었다. 이것은 위의 세 명과 함께하여 요행히도 죽음을 면한 부인의 이야기이다. 이현(泥岬)의 일본병영에 있던 오카토모(岡友) 모씨 이외에 5명은 총기 기술자와 목수 등이었는데, 모두 생사를 알 수 없다. 또한 그곳에 케이다조(慶田組)에 있던 쿠니오카(國岡) 모씨 부처 및 그의 아이들, 그리고 케이다조(慶田組)의 반두(伴頭) 1명은 누구인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체를 발견했다. 관리와 무인(武人)의 사망자는 어학생도 1명, 조장 1명, 병졸 1명뿐이다. 또한 이소바야(磯林)<sup>58)</sup> 대위는 아카바네 헤이타로(赤羽平太郎), 이쿠도(幾度) 모씨와 함께 내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걱정된다. 이상은 소생 등(이노우에 카쿠고로[正上角五郎], 이마이즈미 히데타로[今泉秀太郎])이 이번의 遭難을 略記한 것이다. 끝(畢).<sup>59)</sup>

## 10) 12월 정변으로 살해된 일본인<sup>60)</sup>

지난 12월 조선의 경성에서 중국병사 또는 조선 亂民으로 인해 살해된 우리 일본인의 성명을 확인하여 아래에 게재한다.

橋本龜吉, 黒田幸助, 江見治助, 東屋貞吉, 吉澤増吉, 住永辰安, 浦瀬由太郎, 山田修藏, 久保田孫一, 金色良忍, 古野辰藏, 奥川義一, 國岡健云, 이 사람의 부인 유키(ゆき), 田邊正光, 松岡總五郎, 田中直次郎, 井上よし, 井上いし, 諫山卯三郎, 松本吉之助, 山口孫太郎, 井奈田金三, 福井利助, 山口辰藏, 總嶋和作, 古屋堅四郎, 友田龜次郎,

58) 이소바야 신조(磯林眞造).

59) 신문에는 畢부분에 「尙ほ漏れたる處は他日を以て詳説すべし。畢」로 되어 있음.

60) 이 부분 전체는 「時事新報」에 없는 부분임. 조선에서 살해 또는 부상당한 일본인의 명부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의 신문에 수록할 때는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杉原常藏, 上野茂市郎, 神邊治平, 田中鶴次, 本田收之助, 黒木國三郎, 磯林眞三, 赤羽平太郎, 幾度久太郎

이상 39명<sup>61)</sup>

동 부상자

面高俊一, 菊地留三郎, 小野寺直理, 相擇勇吉, 千葉泰治, 空戸儀平, 菅原長兵衛

이상 7명

### 3. 『遭難記事』의 원문 탈초문<sup>62)</sup>

井上角五郎

今泉秀太郎

#### 1) 12월 4일

明治十七年十二月四日午<sub>下</sub>(後)<sup>63)</sup>七時三十分、郵征局にて親軍右營々使閔泳翊は何者の爲めにか暗刺せられ、大に負傷せり。先是、朝鮮政府は新たに郵便の制を創し、局を京域内典洞に置き、名けて郵

61) 39명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름이 기재된 것은 37명임.

62) 『遭難記事』의 원문에는 전부 한자와 가타카나를 이용하고 있으나, 본고에 서는 편의상 히라가나를 사용함.

63) 여기서 소개한 필사본 『遭難記事』의 탈초 원문은 「時事新報」에 발표된 『遭難記事』와의 내용 비교를 위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밑줄과 괄호로 표시해 두었다. 즉, 밑줄 부분은 필사본 『遭難記事』의 원문이고, 괄호 부분은 「時事新報」의 내용임.



征局となし、内衛門協辦洪英植を以て總辦に命し、司事十四人を置きて之(これ)を輔け、日本人二名其顧問に備はれり。

去る十一月十八日より京城内各洞及ひ(ひ)京城仁川兩地の郵便事務を取(取)扱ひしが、十二月四日に至り洪氏宴を同局に聞き、親軍各營々使及ひ(ひ)金玉均、朴泳孝、徐光範等世人の目して獨立黨又は日本黨と称する者及ひ(ひ)各國使官等を招き饗し、称して開業式と云へり。宴の將(將さ)に終らんとするとき、局隣に山に火(出火)あり。此外同時に京城市(市中)兩三ヶ所に出火あり。來客皆な驚き去らんとするに、賊徒數士(十人)各々一刀を提げ、局の外門(門外にて)第一に出て(で)來りし閔泳翊を一撃せし者あり。閔氏驚き門内に走らんとせしに闕(蹟)き倒れたれば、賊徒中更に又これを一撃せし者あり。されとも局内には西洋料理方の日本人數名居合せしにより出て救ひたれば、賊徒盡く逃れ去れり。因て閔氏等は局内にて手當せし後、典園局幫辦獨乙人穆麟德の家に送致し、後其(其後)日本軍醫をして負傷を治療せしめられしに、同軍醫の話には、閔氏の負傷は凡そ六ヶ所にて、其内右耳より肩にかけ背に及ぼせし刀傷を尤も大なりとす。但し各傷共に多く出血したれば、思ふに閔氏の生命は覺束なかるべしと云はれたり。初め閔氏が局門を出て(で)來りしとき、これに次きて出て(で)し者(客)は錦陵尉駙馬爵朴泳孝にて、次き(ぎ)に外衛門協辦金玉均、次き(ぎ)に内衛門參議徐光範、次き(ぎ)に親軍三營々使泰駿、李祖淵、韓圭稷等にて、洪氏は局内に残り、又支那領事陳樹棠は局門より後と還りして局内に至り、穆氏ここに居合せ、共に閔氏を介抱し、而して朴氏以下は皆な逃げ去りて國王陛下の許に至れり。陛下この事變を聞くや偶々闕内にも爆發藥にて宮殿の一部を碎(碎)破すること凡そ二回にして火起る。依て、國王陛下は大闕ヲ避けて先づ桂洞の景龍(祐)宮<sup>64</sup>)に遷り、後又桂洞宮に遷れり。該宮は四寸王親李載元

の宅にして宮内甚だ廣く、繞らすに五重の扉を以てすと云ふ。國王陛下故らに邊縁を以て特諭を日本公使に傳へ、日本公使をして同宮に參會せしむ。公使往かず。依て更に朴泳孝を勅使として親筆の勅書を公使に贈り、參會を促かす。公使竹添進一郎君この勅使勅書を得るや、其護衛兵を率いて入内せり。此時、國(國王)の側に在る者は朴泳孝、金玉均、徐光範、洪英植、尹泰駿、李祖淵、韓圭稷の諸氏。其外待者甚だ多く、親軍諸兵も亦た其處に在り。竹添君は國王の召請に由り參内せしか(か)、時方さに改革に際し騷擾一方ならず。他變あらんことを恐れ警衛兵を用て自から備へ在內せり。時に午後十一時なりき。

## 2) 12월 5일

同五日、昨夜國王の桂宮洞に遷りし以來、海防衛門督辦閔泳穆來り、國王陛下に謁せんことを乞ひ、陛下よりこれを許したれば門内に入り。其後朝鮮人の傳聞に由れば、門内に入り、第一門より第五門に入り、玄關に達するまで(で)の間何處にてか刺客のために殺されたりと。尋て内衛門督辦閔台鎬、趙寧夏(同趙寧夏)も參内して同様にされ殺され、又左營々使李祖淵、前營々使韓圭稷、後營々使尹泰駿は陛下の御前を辭して退出する時、同じく又玄關より第一門に至るまで(で)の間に於て殺され、此内外官(外内官)柳在賢も亦た殺されしと云ふ。

一昨年の亂後、此國に二種の政治主義を生し、一を獨立黨又日本黨と云ひ、専ら日本の開明に模擬して朝鮮の改革を謀り獨立國の實を得んと欲するもの、一を事大黨又支那黨と云ひ、専ら舊習を株守し支那に依頼するものなり。獨立黨は朴泳孝、金玉均を以て首となし、其他數人あり。又日本に往來せしもの及ひ(ひ)曾て日本に遊學せし陸

軍生徒等は大概此黨に加はり、其數少なしと雖とも固結すること強く、實に一黨派の眞面目を備へたり。事大黨は其數甚た多く朝鮮貴紳みな其黨人なれとも、別段固結することなく、譬へば諺に所謂連れの參宮と云ふが如し。其甚々(甚)しきに至(至つては黨中常に軋轢して互に私權を爭ふを事とす。故に獨立黨の勢力強く、偶々昨夜の事變に應し終に政權を得たり。こゝに於てや、五日の朝報には大に徐目を行ひたる旨を布告あり。李載完、朴泳孝、金玉均、申箕善、徐光範は承旨となり、金氏は惠商局堂上を兼ね、朴泳孝は前營々使となり、左捕盜大將を兼ね、徐光範は外衛門協辦を兼ねて(兼ねて)其事務を署理し、邊燧、尹致昊は同參議となり、洪英植は左右後三營々使となり、右捕盜大將を兼ね内衛門協辦は故の如く且つ議政に任す。議政は所調大臣なり。李載元も亦た議政に任し、兵曹判書故の如し。而して在來の官吏は概ねなみ黜免せられたり。午後六時、國王陛下還闕、日本公使隨つて入内し、朝鮮親軍王宮の外郭を警備せり。この時前營司令官尹雄烈も亦入内せり。夜間も亦國王より除目の沙汰ありて金玉均は戸曹參判となれり。

### 3) 12월 6일

同六日朝、途上の風説を聞くに、曰く昨夜支那兵營にては京城内の支那商民に令を下して兵器を所持し居る者は直に支那兵營に參集し、又兵器なき者は明日中に必す(ず)一刀を用意す可しと傳告し、而して昨夜閑(昨夜)内支那兵營に參集するの商民凡そ五十人なりと。果せる哉今日途上見るところの支那人は必ず兵器を携へ居れり。抑も去る四日の事變以來、小生等は從者福島春秀と共に苧洞博文局に在りて、晝間は處々を散歩し、夜間は今泉は校洞日本公使館に至り、井上は依然と博文局に眠りしが、今日午後五時大闕にて銃聲あり。因

て小生等三人は何事の起りしぞと訝り居る際、博文局長金晩植より使來り、井上へ報して曰く、即今支那兵の校將(將校)袁世凱は支那兵を率ひて大關の西門(東門)より攻め入れり、且つ袁氏は城内の支那兵及ひ其商人に令して日本人は見當り次第殺すべしと觸れ示したるに付、早く難を避けて自全の謀を爲すべし、此旨内告すと。井上此報を聞くや同居二人と共に路を間道に取り、日本公使館に至らんとせしに、未だ(た)中途ならずして、支那人一名殺され、其足に繩を着け朝鮮人數多相集りてこれを引廻るを見たり。因て事の危急なるを察し、三人共に拔刀し出て、東大門通りの十字街に至りしに、朝鮮人數十名四方より三人を取圍み石を投したれば、小生等は刀を翳したるまゝ眞直くに寺洞通りに進み、三丁餘を走るの後ち横道を得て僅に襲撃を弛め、漸くして公使館に至るを得たり。小生等は皆な二三箇處つゝ石に打たれたれとも、些少の負傷すら無之實に僥倖至極なりしが、館内に入りて聞くに、日本商人の館外に在りしもの及ひ公使館職工(工の)外出せしもの凡そ數十名(人)は朝鮮人の爲めに殺されたりと云へり。時に午後六時頃なりき。

公使館にては公使及ひ護衛兵は共に大關に至りて、館内に残る者は兵士七人と官吏職工等に過ぎざれば、館員大庭永成君は館内諸人を統率部署して、館内を警備せられたり。先是、竹添君は大庭君を戒めて曰く、予今王命を奉して大關に赴く、因て一分隊を残し本館を守らしむ、若し暴徒來り侵さはば、刀銃相防げと。其后幾もなく、書記官島村久君更に館員を集め、大庭君に令して曰く、禍亂の本館に及ふ測る可らず、館内の婦女幼兒は皆正館に移し、事急に迫らば屍を枕にすると醜辱を貽すべからず(す可らず)。且つ此諸員大庭の指揮は猶ほ公使の命なりと思ひ必ず背く勿れと。於是乎、皆な死を誓ひ各守る所に就けり。此時大關に火起りて、公使以下の安否實に知る可らざれば、大庭君は館内を周旋して諸人を獎勵し、諸

人をして一死國恩に報す(ず)るの念を生せしめたり。午後七時三十分  
 亂兵來り、前後より公使館を襲ひ銃擊暫時止まず。須臾にして竹添  
 進一郎君は其備兵(警備兵)と共に歸館せられ、館内始めて日本萬歲  
 の祝聲を發するを得たり。傳へ聞く大關にては、支那兵來りて東門よ  
 り入り王宮の外を攻め、朝鮮親軍又たこれに應じ共に日本兵に向つて  
 銃射せしに依り、日本公使も兵士をしてこれに答射せしめしかとも、  
 兵少なく地理惡しく王宮終に守り難きに依り、止(止む)を得ず公使は  
共に(公使は)護衛兵と共に國王陛下に供奉して後園の山に退く。此時  
 大關に火の手揚かる。此際皇后<sup>65)</sup>閔氏并に皇太后趙氏は疾く王宮を  
 脱して玉泉宮に趣き(赴き)玉ひたりと云ふ。國王陛下は日本公使と共  
 に後園に退きたる上にて公使に別を告げ、皇太后の在る所に赴(赴き)  
 玉ひたれば、日本公使は大關の西門より出て、道を北岳の麓に取り、  
 齊洞より安洞に出て校洞(公傳館の在る處)に來らんとするとき伏兵に  
 要撃せられ、陸軍語學生上野茂一郎氏、曹長某氏の二名これに死  
 す。負傷者(負傷の者)は三名あり。此時公使館も同し(同じ)く亦襲撃  
 せられたるあり(なり)。其後夜間は別段事變も無之、唯だ途上には朝  
 鮮人各處に篝火を置きて其左右に徘徊せしのみ。午後九時三十分、  
 博文局より火起れり。思ふに小生等が永く住居せし家屋、久しく使用  
 せる什器は共に灰燼(灰塵)となりしならん。大關を燒くの後、先つ(先  
 つ)第一番に火を付けたるは此局なれば、小生をして支那人が「漢城旬  
 報」に恨を抱くの深き特にこゝに及ひ(ひ)たるを疑はしめたり。

抑も博文局は井上が一昨冬始めて此國に來たりし以來、常に住居  
 せし所にして、昨秋舊曆十一月(十月)一日より官局となし、活版機械  
 を置きて毎月三回つゝ「漢城旬報」を發刊し、統理外衛門協辦金植

65) ‘皇后’에 대해서는 「時事新報」에서도 ‘皇后’로 표기하고 있으나, 전술한  
 하라다 타마키(原田環)의 번각문에서는 ‘皇后’를 ‘皇后[王后]’, ‘皇太后’  
 를 ‘皇太后[王太后]’라고 교정하고 있다. 原田環, 앞의 논문, 340-341쪽.

(金晩植)其局長を兼ね、別に主事一人司事三人、此外屬吏甚だ(た)多く、此旬報は毎号三千冊を發刊し、之を全國に配布し、而して目下方さに第四十号の發刊に着手せしとき、偶々今回の事變あり。嗟乎。井上、苟且にも朝鮮の頑民を開導して天下の大勢を知らしめんと欲し、自から旬報の編著を總理せしも遂に其効なくして茲に至るは、實に世上操觚の士に愧る所あるなり。且つや此旬報は大に支那官民の惡む所となりて、今春末の如きは支那官吏は公けに朝鮮政府に照會して其記事の支那に無理なるを咎め、又支那兵民は私に井上を暗殺せんと謀りし由。かゝる有様なれは(は)博文局の出火は兎も角も、井上の生存は支那(支那人)の遺憾とする所なるべし。同十一時、泥岬の日本兵營燒失す。

#### 4) 12월 7일

同七日早朝より我公使館の護衛隊は處々へ斥候を出し、且つ朝鮮人をして域内の様子を探らしめしに、或は曰く城京<sup>レ</sup>の各門は日本兵の出路を絶つか爲めに支那兵と朝鮮兵と共にこれを警備すと。或は曰く支那兵は安洞に整列し居れり(りと)。而して館内には糧食既に乏しく、實に館内諸員をして釜中の魚たる思ひを爲さしめたり。午前八時、<sup>ママ</sup>警衛隊より氣を付けの号令あり。館内諸員は皆な用意をなせしに、同十時、金玉均の宅より火の手揚る。此時朝鮮人は銃又(又は)石にて公使館前を南北より襲ひ來ること凡(凡そ)三回。毎回護衛隊より銃射して遂ひ却けしが、午後に至り、竹添公使は中隊長歩兵大尉村上正積君及び館員を招き、進退如何とその意見を問はれ、種々評議の後、竹添君遂に意を決し命令を下して曰く、支那兵既に餘を大關に攻め、朝鮮兵も亦これに與みし、本館孤立敵線の中に在り。使

命今殆んと盡きたり。徒らにこの處に在て死を待たんより、寧ろ仁川に赴き後圖を爲さんには速に國旗を撤し去れと。同三時三十分、館内の日本人一同遂に館を出て、仁川に向へり。この一行を警衛する日本兵は凡そ百四十名にして、外に公使館員及ひ(ひ)其家屬又職工商民等合計百餘人なりしに付き、都合二百五十人あり。乃ち護衛隊二小隊は先鋒を爲し、村上中隊長は中央に在りて先後を指揮し、二小隊は殿後に進み、その間に公使以下諸人を容れ、校洞より出てゝ(でゝ)東門大(東大門)通りに至り、更に西向して進みしに、凡そ岐路あるに遇へば朝鮮兵必ず發銃し、且つ其人民或は石を投し矢を發つに付き先鋒も亦た發銃してこれを退け、而して後靜かに進みしが、舊大闕通りの前に至りしとき、親軍左營兵士凡そ五百人整列して我道を遮り、我に向て大砲を發すること二回。一つは彈丸竹添公使の前に落ち、一つは空發なりき。後又小銃を連發せり。されども日本兵の銃射に由り遂に散亂せり。因て復た進て(んで)西闕の前に至り、折れて新門に至る。門閉つ。新門は所謂八大門の一にして、稱して堅固と爲す。されとも我職工數人斧にて其鑰を斷ち容易に開きて之を出て(で)たり。

此門の兩側は小高く丘をなし、人家は内外に并列すれば此處を切拔する(拔る)は最も困難なりき。これより道を麻浦に向けしに、左まで困難を見ず。左れとも斷えず狙撃に遇へり。麻浦は漢江の東岸に在りて、人家數百、多くは漁戸農家なり。護衛隊士官の言に曰く、全隊與に麻浦に至らば、其地人民必ず先づ(づ)逃れて、江を渡らんとするも舟を漕ぐ水夫を得ること能はず。且つ其間に舟楫を絶たるゝの憂あり。故に壯士數人先づ(づ)拔刀を以て進て(んで)麻浦に至り、水夫を捕へ且つ渡舟を備ふべしと。其時自から喜て(んで)拔刀を爲し進んで麻浦に至りし者は小生等兩人と外に田中(田村)某あり。大庭永成、川上是一郎(立一郎)兩氏銃を以て之を護す。而して小生等麻浦に至れば、

人民みな遁れて在らず。依て手銃<sup>レ</sup>(銃手)二人は舟楫八隻を準備し、刀手三人は各自に朝鮮人の家内に入り水夫四人を探り得、惣勢の來るを待てり。漢江は幅三丁餘にして此夕薄氷滿川、故に水先氷を破り櫂手權をとり、始めて船を遣るを得べし。故に惣勢の已に渡頭に至るや、堅固の舟を擇て(んで)竹添公使及警備隨員と村上中隊長之に乗り、水夫に權を執せ(らせ)氷を破りながら進て(で)中流に至りしとき、近傍に在る他の船(船中)より伏兵顯はれ出て(で)ゝ我船を狙撃せり。されとも第四小隊岸上より早く右伏兵のあるを察知し、これを側面より銃射し、又舟中よりも各々發射したれば(ば)、終に恙なく(恙なく)惣勢みな前岸に達し、其處にて休息せり。此時日本公使館にて火の起るを見たり。時に午後六時貳拾分(廿分)なりき。公使館を出てゝ(出てゝより)新門まで時を費すこと一時十分門(分間)、又新門より渡江し終る迄一時四十分(四十分間)なり。此間日本兵一名負傷したるのみなり。

此ここに(こゝに)不思議に死を遁れたる者あり。奥川加太郎夫妻は其弟福田某と共に京域内南村の植物公園に居住せしが、偶々六日の夕方に迨び闕内にて發銃の聲を聞くや、暴民數多襲ふて公園内に來り、加太郎兄弟を殺せり。其妻驚き逃れて隣家に走り、竈裡に隠れたり。此女兼て勇にして且つ僅に朝鮮語を解するに由り、韓女の様に衣服を扮し頭髮を韓風に結んで時機を俟ち將に域外に逃れ出てんとせしに、七日の午前八九時の頃より日本公使館にて發銃の聲を聞くこと數々にて、終に午後三四時の頃に迨び其聲漸く南大門に近ぐか(近つたか)如くに思はれたれた(れは)、隣家を出て(てゝ)間路より南大門に至りしに門閉ち(ち)て出づ(づ)る能はず。惟た壁より一繩を垂るゝを見たり。依て直ちにこれに攀ちて壁を踰へ、終に麻浦に走りしに、始めて士民の疑ふ所となり、多數男女相聚りて倭女殺すべし追かす可らず(ず)と罵り合ひ、且つ將に其辱を被らんとせしか(か)、偶々日本兵は公使以下諸人と共に新門より出てゝ麻浦に向ひ、其前驅漸く麻浦に入り込みたれ



ば、辛うして韓人の毒手を免かるゝことを得て、公使以下諸人と共に漢江を渡り、前岸に達して後ち其經歷を物語せしに、聞く者みな其勇を称せり。此女よく一生を萬死中に得る、實に僥倖と雖ども亦た天運なるかな。惟た夫に別れ弟に死なれ、嫠 寡據ところを失ふ。眞に憐むに耐へたり。されとも昨今死者數十名(人)、誰れか父母なからん。又誰れか妻子なからん。此父母妻子も亦其悲哀、誠に此女に等しかるべく思ふて、此に至らば小生等涕の此紙に溢るゝを知らざ(らざ)るなり。

又泥岬に在る者一人、韓人の衣服を着して六日の午後五時頃日本公使館に逃げ來れり。其人の話に曰く、已に校洞通りに至り水標橋を過くるや、其近傍に在る支那商店より十名(十數)の支那人出て(で)來り、みな一刀を携へて朝鮮人を指揮し、韓語にて彼れ朝鮮人にあらず、倭奴なり、殺すべし、免すなかれと連呼合唱、終に其人に敵對せり。されとも幸ひに其中を切抜け公使館に達せりと。

此外、公使館に遁れ來りし人の話を聞くに、支那人多くは朝鮮人と同しく日本人を襲撃要殺せりと云ふ。然らは(ば)昨日袁世凱が部下并に支那商に命令し、日本人は官商を論せず必ず殺すべしと云へること、實に法外に思はるれとも蓋し虚傳ならさる(ざる)なり。支那人は日本人に何の恨む所あつて此に及ぶか、眞に日本人民たる者切齒扼腕に耐へさ(ざ)るなり。惟た小生等が昨日公使館に至らんとするときには、支那人も亦た朝鮮人に襲はれ、終に其殺すところとなりしものありしか(か)如し。これ蓋し曾て恨を朝鮮人に得たる者にして其輩の爲めに殺されしならん。決して一般の事實にあらさ(ざ)るべし。何となれば其后(後)朝鮮人をして城内の様子を伺候せしめしに、曾て支那人の死骸を見ずと告げたればなり。兎も角も支那商の多く在りしは水標橋近傍にて、水標橋以外の日本人獨り多く殺されしを見るも、亦た支那人の直接或は(或は間接に)教唆下手せしと思はるゝことあるなり。小生等も亦た水標橋以外に在りたれと(ども)、其遁れて公使館に至るや道を迂回にして長

橋を渡り、小路より寺洞通りに至りたれば、支那商等の襲撃を免かれ、獨り朝鮮人に襲はれしことならんと思はる。亦た偶然の幸なりき。

麻浦にて漢江を渡り上り、此處より進んで仁川に向はんとするとき、日已に暮れて路暗らく且つ雪降りて風強く、特に諸人みな輕衣にて重襲せず。漢江までは勇威にて寒を覺えざりしも、此處に至つて寒を覺へ且つ漸く進んで漸く寒く、數々路傍の草芥を燒きて暖を取りしも、終に其效なく惟た一時の快を(快に)過きさ(さ)りき。婦人小兒特に負傷者の苦痛察すべきなり。吾人をして此に至らしる(しむる)者は果して誰れぞ。小生等は吾が同胞三千七百萬人をしてこの苦痛の萬一だも察せしめんと欲するなり。夜半十二時、梧里洞に達す。梧里洞は京城仁川兩地間の大驛にして人家凡そ十餘戸、されども其住民遁れて家に在らず。故に食を購ひ水を求むるの便なく、さりとて吾人は一毫も侵し奪ふを欲せず。故に或は明き屋に入りて雪を凌ぎ、或は火を燒きて暖を取り、凡そ一時間餘にして亦た進んで仁川に向へり。此時小生等は寒に耐へず(ず)。何んとなれば小生等は博文局より公使館へ遁るゝとき已に輕衣なりしに付き、吾が同勢に比して特に薄裝なりし故なり。二人相擁して暖を取り、終に議して各々草藁を被りたり。今泉之に(これに)答へて曰く、小生は他日小生をしてこの異裝をなしたる者をして、第二小隊長大西中尉之れ(これ)を評して曰く、團々珍聞の戯畫も亦た之れ(これ)に及はずと。更らに一層の異裝を爲し苦痛を受けしめ、而して后ち(後ち)并せてこれを團々珍聞に投畫し、天下の人をして今夜小生の異裝未だ異裝と云ふに足らざるを知らしめんとするなりと。將さに星峴に至らんとするとき、仁川領事館より使あり至る。時に已に鷄鳴后(後)なりき。今ま其人の言ふ所を略記するに曰く、去る五日京城より仁川に出したる書狀は領事館に達したれども其後音信なし。故に朝鮮人を使とし書狀を京城に送らんとせしに、今日に至てはこれ

を肯するものなく、依て自ら京城に至らんとして此處迄來れりと。又た曰く、去る六日の午後、千歲丸釜山より入來せりと。已に星峴に及ばんとするとき雲降り歩行頗る難かりしが、星峴を越すときは天晴れ月出てたり。越へて仁川まで一里餘と云ふの處に至りしとき、領事館より馬及ひ(ひ)轎を送り、竹添公使及び島村書記官を迎へたれば、小生等はこの時より歩行を速め、惣勢に先つて同八日の午前六時に仁川に着せり。京城より仁川に至る其間凡そ七里、而して時を費す凡そ十五時間。甚だ(た)遅きに似たれとも、一は道惡しく雪積んて(で)歩行に難きと、一は婦人小兒の(小兒)同行に加はりしに由り、こゝに至れり。惣勢全く仁川に着せしは午前九時なりしと云ふ。

## 5) 12월 8일

八日(十二月八日)、午前の内に京城より引揚げ來りたる總員二百五十名、皆仁川港濟物浦の居留地に着し、竹添公使以下日本公使館員は領事館に駐まり、小生等は三菱汽船宿福島友吉方に宿す。護衛兵一中隊は一纏めに宿泊すべき場所なきゆえ、一分隊つゝ分れて諸商店に宿を取り、中隊本部は西洋酒并に西洋小間物店堀久の家と定まりたり。偕仁川にては竹添公使以下諸人の京城より引揚げ聞くや來るを領事館は申すまでなく(もなく)、居留商人等率ねみな或は飲食を道に饋りて諸人を犒ひ、或は領事館に參集して竹添君以下を待設くるの用意をなし、且つ兼ねては自家一身の非常用意をなす等混雜一方ならず。日本兵は仁川に着するや直ちに(着するや)居留地界の各處を屯守し、極めて警衛を嚴にし、日本軍艦(日本軍艦日進艦)よりも亦た水兵若干人上陸、且つ大砲二門を引き上げ、これを地界の要處に据へ付けたり。今日仁川港内に碇泊する軍艦は我日進艦と英國砲艦号エス

ポイル之(の)二艦にして、此外三菱汽船千歳丸一艘ありき。小生等は仁川に着し福島に宿したれとも(ども)、衣服は薄く且つ濕(濕)ひ、而して靴なし(なく)、又手巾なく、之(これ)を求めんとすれとも(するも)終に得べからず。故に一書を千歳丸船長辻覺三郎君に寄せて其由を告げしに、同君直ちに上陸して小生等を訪ひ慰め、且つ衣服衾布などを惠與せられたり。此際此惠亦た何を以てか謝し盡さん。記して以て永久の記念に備ふるのみ。今日内別に異變を生せず。

抑も一昨年(の)亂後、朝鮮人は日本を畏るゝこと甚しかりしが、中頃より大に日本の文物を景慕し、彼の所謂事大黨と名け(名つけ)支那の威を假りて私權を壇にするものゝ外は、上み貴族官吏は日本人の改革進歩の力に富むを喜び(喜び)、日本人の着實人に忠なるを愛し、下も(下)商工使役に至ては(至つては)、日本人の疎暴ならざるを好んで、支那人の信義なきを惡み、實に日本人をして朝鮮人に對し友誼の念を生せしめしは、當時この國に在留せん(せし)人々のみな知る所なり。去る十一月二日、竹添公使は國王に謁して償金五十萬弗中四十萬弗を返與せられたれば、朝鮮官民は大に感喜せり。然るに今回日本兵の支那兵に攻められしを聞くや、朝鮮人も亦た日本人の家屋を燒き毀ち、又日本人と見れば男女の區別なく、石を投して之を(これを)殺せしは、不審の至りなり。先是、閔泳翊は歐米各國を回覽し、今春に至り歸國せしが、其後専ら心を兵制に用ひ、特に忠義兵なる者を編せり。同氏の説に曰く、歐米各國みなミリシヤ(勇義兵)<sup>원문 그대로</sup>なる者あり。常備軍の外、國家事あるに臨て(臨んで)忠を君に盡すものは是れなり。我國も亦たこの兵なかるべからずと。乃ち同志相結び、且つ富商豪農をして多少の釀金をなさしめ、共に契と称す。契とは、韓語コンペニイの調なり。無賴の徒、遊食の輩一千餘人を集合して、これに多少の給與をなし、且つ傭役に充てゝ其信從にこれを(其信從を得、終にこれを)忠義兵と名づけたり。されとも國王及ひ(ひ)近臣數人早くも其以て門地

をなし謀異(謀異常)に出てんとするを知り、これを禁して解散せしめしが、閔氏陽はに命を奉して陰かにこれに従はざるのみならず(ず)、近日に至て(至つて)は、右忠義兵に與ふるにマルチニ銃一挺つゝ(づゝ)を以てしたり。されとも國王に憚りあれば、衣服は常人の服を着け、且つ操練せざりしと云ふ。去る四日に閔氏傷けられ、尋て其一族多く殺されたれば、この忠義兵等みな大に怒り、就中閔氏の家臣李斗鉉なる者その大將となり、諸人を扇動して支那兵と結び、これに亦た洋人なる者加はりて域内を騷擾せり。一犬虚を吠へて萬犬これに倣ふ。實に愚民の時機に乗するは止を(止むを)得さることにて、朝鮮人も亦た日本人を害せしと雖とも(ども)、其首唱たりし者は右の忠義兵なりと云ふ。洋人は又別抄軍とも称し、都合二百人あり。域内の屠牛者より抄選したるものにて、親軍四營へ各々五十人を分配隸屬せり。支那兵の大闕を攻めしとき、先つ之に與せしも、亦此洋人、即ち別抄軍なりと言ふ。右は仁川に在留中、朝鮮人より聞く所なり。記して參考に供す。

## 6) 12월 9일

同九日午前、京城の支那兵營より、日本公使へ一使を送れりと云ふ。同十一時四十五分、仁川に在留支那領事金氏は來つて日本領事館官を訪へり。この時護衛隊にては氣を付けの号令ありて、各々要地に并列せられたれば、港内頗る騷擾せり。傳へ聞く、今日午前

モルレンドルフ  
穆麟德<sup>66)</sup>は仁川の税關まで歸り來れり。同人は一昨年來、朝鮮政府に仕へて其國民となり、衣服を更めて朝鮮人の如くせしが、此度は復た洋服を着し、且つ髪を斷つて生來の日耳曼人となりし由。偕て穆氏の所説なりとて傳ふる言あり。其略に曰く、京城は人氣漸く收まり、

66) 원문 그대로임.

支那商は以前の如く開店せる者多しと。小生等察するに、昨今の變動(騷動)は概ね朝鮮人が支那人に教唆されて起せしものなれば、左もあるべきことなり。午後五時頃、朝鮮政府の新外務督辦越秉鎬外一名京城より仁川に來り、竹添公使に面談して後歸り去れり。今夕、日本商人一名京城より遁れ來る。

## 7) 12월 10일

同十日午前、西洋人三名と日本商人三名、京城より遁れ來れり。午後に至り、日本兵の在京城米國公使館、并に英國總領事館を護衛せし者四名と(是れは四日の夜、郵征局の騷動に續き、王宮内にも爆裂あり。國王遂に桂洞宮に行幸して難を避け玉ふなど、危急の勢に迫りたれば、米國公使フウト(フート)氏并に英國總領事アストン氏より各急使を我公使館に馳せ、朝鮮國王の例に倣ひ公館警備の爲め護衛兵の一部分を借用致し度しと切に依頼ありたれとも、公使館にては既に竹添公使が過半の兵員を引率して行在所に驅付けたる后ちにて(後にて)、留守の番兵甚だ人少なるにより、依頼の通り十分の人數を分ち與る(與ふる)こと出來兼ね、差當り急場の用にとて米國公使館には四人(四名)、英國總領事館には二名の兵士を貸與へたるなり) 外に米國公使館傭日本人及ひ(ひ)同館に逃げ込みたる日本商人合せて十五名は、支那兵に送られて仁川に歸り來れり。其(其内)婦人一名あり。この婦人は本多收之助(收之輔)の妻にて、本多は京城に在て兼て寫眞を業とせしが、夫妻に子女二人あり。且つ日本兵營の在る泥岬に居住したれば、親子四人共に殺されしことならんと思ひしに、夫獨り死して餘は存命せり。これを奥川の妻に比するに共に僥倖なりき。今夕、米國公使、英國總領事、并に獨逸領事とも仁川に來れり。

本日、京城より來りたる人々の話を聞くに、左の要件あり。一に曰

く、去る八日朝鮮政府は新に南大門に掲示して、猥りに日本人を殺す勿れと云へり。二に曰く、國王は遁れて支那兵營に至り、支那兵は之を護して大闕に入り、嚴重に護衛すと。三に曰く、支那兵死者三十人、朝鮮兵死者十六人、又朝鮮支那兩國人民の死亡は隨分多數の由なるが幾何なるを知らず。四に曰く、去る八日、洪英植は支那兵營にて公に斬られたりと。五に曰く、閔泳翊は支那兵營にて療治をなせしに頗る快氣なり。六に曰く、日本人の居宅は官商の別なく一切燒き(燒き拂ひ)、特に博文局の如きは全く灰燼となれり。而して率ね支那人の所爲なりと。七に曰く、事變以前の官吏は皆な舊職に復せりと。八に曰く、英米公使領事館は襲はるゝことなく、且つ支那兵より保護せりと。九に曰く、九に曰く、支那領事館は安全至極なりと。而して日本人の死者は兵士二人、陸軍語學生一人、商人凡そ二十餘人にて、生死を知らざる者(者も)亦た少なからず。磯林眞造君は陸軍參謀大尉にて、曩きに陸軍語學生一人及ひ(ひ)從者一人を隨へて江原道に旅行せられしが、今に至るまで(で)歸り來らず。懸念の至りけり(なり)。然れとも同君は多年朝鮮に在りて朝鮮人中に知人多く、よく朝鮮語を話し、且つ度々内地に旅行して、國內の風俗人氣をも心得居り。朝鮮人中には一体に人望ある人ゆえ、今回の騷亂に際しても、唯(唯)同君か(か)京城にさへ立寄らず、支那兵又は朝鮮忠義軍などの目にさへ懸らざれは(は)、決して殺害せらるゝ氣遣ひなし。多分、同君は内地にて京城の變を聞き、夫れより最近の開港場を指して潛行したるならんと思はる。井上は、平生同君と交り厚く、別して君の無事を祈り居るなり。

(今日頗る斷腸の一話を聞き得たり。夫は別事にあらず。) 去る六日の夜、支那兵大闕の東門より入りて王宮守衛の日本兵を襲撃し、日本兵も亦これに應戦するに當り、朝鮮の親軍も支那兵に應じ特に別抄軍は裏手に廻はりて、我兵の横合に小銃を打掛くる有様なれば、腹背

の敵に我兵も王宮の守り難きを知り、後園の山に退かんとする。此時、皇后皇太后とも早既に何れへか落ち行き玉ひて、宮内に在るは唯國王陛下のみなり。陛下先つ後園の山に退き玉ひ、竹添公使も亦此處に來り。朴泳孝、金玉均などを始め侍臣も皆御側に在りしが、此時支那兵の銃丸は狙ひの高きゆえにや玉坐近く飛び來りて、侍臣の流れ丸に中りて即死したる者二名あり。國王は、只管、皇太后と同處に居り度し、死すとも悔ひず、とまでに懇望せらるゝに依り、今は侍臣等も諫め兼ね遂に別を告げ、竹添公使に國王は玉泉宮の方を指し出立ち玉はんとするに臨み、扈從中に在る朴泳孝、金玉均、徐光範等進み出て御前に向ひ、臣等事を謀ること宜き(宜しき)を得ず、支那兵(支那兵に)攻められ親軍に反かれ、遂に此勢に迫りたり、依て臣等は何處を問はず、陛下の行幸せんと欲する處に扈從して唯一死を以て(死以て)命を奉す(ず)べき筈なれとも、臣等亦熟ら考ふるに、事一たび敗れたと(敗れたり)と雖とも、今日は未だ臣等が一死君恩に報するの時にあらずや(あらず)、辱(必ずや辱)を忍ひ(ひ)死を惜み、堅忍以て大に後來に處する所なかるべからず。故に今回は議政洪英植を留めて供奉警衛の任に當らしめ、臣等は是より御暇を乞ひ、暫時身を隱して亂の定まるを待ち、再び天顔を拝すべしと言上す。國王は朴、金等に向て曰く、今日の勢朕と雖とも死處を知ること能はず。汝等は何處に在て身の安全を謀られと(謀らんと)するかと。朴、金等答へて曰く、洪英植にして陛下に供奉しあらんには、假令支那兵來るとも決して危険の事あるへからす(ず)。陛下の此世に在ます間は、臣等何様の辛苦を嘗むるも誓て死することなかるべし、御安心あれと(あれとて)、朴、金等以下皆々御前を拝辭す。國王涙を拂ひ玉ひ、朴、金等皆泣く。侍臣一同仰き見ること能はず。側に在る日本人までも共に貰ひ泣きたりと云ふ。是より國王は支那軍に入り、洪英植は公けに斬られたる由なり。洪英植は元と事大黨に親み多く、此人なれば多分殺さるゝことも



あるましと斯く計らひたることなるべきに、洪氏も遂に命を全うすること能はざりしは氣の毒なることなり。又朴泳孝は其後事大黨の爲めに執へられ、金玉均は未だ所在知れずとの風説なり。

## 8) 12월 11일~18일

同十一日午前七時三十(二十)分、千歳丸仁川港を發し、長崎港に向へり。船中には日本公使館の屬員木下直弘君あり。君は竹添公使よりの上申書を携え東京に歸らるゝなり。其外は負傷の者(負傷者)八人と婦人小供等凡そ百五十人と、西洋人數名と小生等なり。航海中風波穩かに同十三日午前九時三十分長崎港に着す。夫れより玄海丸にて長崎を發し、神戸より和歌浦丸に乗替へ、十八日午前一時横濱に着したり。

## 9) 12월 11일 아침에 들었던 피해 상황

又去る十一日の朝、仁川を出立する時迄に聞き得たる今回の事變に付、一死者及び生死を知らざる者の數は凡そ三十名あり。金色良忍、相島某は金玉均の宅にあり。山田修三、外五人は會洞の養氣亭にあり。浦瀬某、外二人は同處の福島屋にあり。以上皆去る六日の夕方に迫ひ(ひ)日本公使館に至らんとするの途中、朝鮮人のために瓦石にて撃ち殺され、此外商人の生死を知らざるもの四五人と云ふ(いふ)。本多收之助(收之輔)、奥川加太郎、及(及び)加太郎の弟一人は支那人のために殺さる。是は右三人と同居し僥倖へ(に)死を免かれたる婦人の話なり。泥岬の日本兵營に在りし岡友某、外五人は銃工大工等なりしが共に生死知れず。又同處の慶田組に在りし國岡某夫妻

及ひ(び)其小兒と慶田組の伴頭一人は何者のためにか殺されたりと見え、其死體を見出せり。官吏武人の死者は語學生徒一人、曹長一人、兵卒一人のみ。又磯林大尉は赤羽平太郎、幾度某と共に内地旅行をなせしか(なせしが)未だ歸り來らず。人々懸念せり。以上は小生等即ち(井上角五郎・今井秀太郎)(「時事新報」에는 윗점 표시 부분이 없음)가今回遭難の略記なり。畢。(「時事新報」에는 “尙ほ漏れたる處は他日を以て詳説すべし。畢。”이 삽입되어 있음)

## 10) 12월 정변으로 살해된 일본인<sup>67)</sup>

去十二月朝鮮京城に於て支那兵又は朝鮮亂民の爲めに殺害されて死亡○<sup>68)</sup>し、我日本人の姓名を得たれば左に揚く。

橋本龜吉、黒田幸助、江見治助、東屋貞吉、吉澤増吉、住永辰安、浦瀬由太郎、山田修藏、久保田孫一、金色良忍、古野辰藏、奥川義一、國岡健云、同人妻ゆき、田邊正光、松岡總五郎、田中直次郎、井上よし、同いし、諫山卯三郎、松本吉之助、山口孫太郎、井奈田金三、福井利助、山口辰藏、總嶋和作、古屋堅四郎、友田龜次郎、杉原常藏、上野茂市郎、神邊治平、田中鶴次、本田收之助、黒木國三郎、磯林眞三、赤羽平太郎、幾度久太郎

以上、三十九名

同負傷者

面高俊一、菊地留三郎、小野寺直理、相擇勇吉、千葉泰治、空戸儀平、菅原長兵衛

以上、七名

67) 전술한 바이지만, 이 부분은 「時事新報」에 누락되어 있음.

68) 미판독.

#### 4. 『遭難記事』의 진위와 사료적 특징

지금까지 『遭難記事』의 대략적인 소개 경위와 번역문 및 원문을 살펴봐왔는데, 본장에서는 이 사료의 진위 여부를 「時事新報」의 게재된 기사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그 사료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遭難記事』 필사본의 진위 여부부터 살펴보겠다.

『遭難記事』의 12월 7일자 기록에는 오쿠가와 카타로(奥川加太郎)의 부인이 탈출하는 경위를 기술한 후에 일본인의 사망자가 수십 명이라고 하면서 “어느 누가 부모 아니겠는가. 또한 어느 누가 처자가 아니겠는가. 이 부모처자도 또한 그 비애가 정말로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생각되어 여기에 이르러 소생 등은 눈물이 이 종이에 흘러내리는 것조차 잊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현재형의 어투로 눈물이 ‘종이’에 흘러내리는 것조차 잊었다는 언급은 바로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사 기록이 있다는 것은 이하 소개하는 「井上角五郎氏歸京」에서도 증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느냐는 점과 함께 생각해 보겠다. 「井上角五郎氏歸京」은 「時事新報」의 『遭難記事』 앞부분에 실린 이노우에 카쿠고로의 조선에서의 행적과 귀국길, 그리고 기사를 게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것인데, 다음과 같다.

[자료3] 「井上角五郎氏歸京」

① 이노우에 카쿠고로(井上角五郎)씨는 몇 해 전부터 조선정부에 초대되어 그 나라의 관보 「漢城旬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조선의 사정에 대해서는 가장 밝은 사람으로서 이번 사변에 즈음해서도 그 실황을 목격하였다. 다른 일본인과 함께 난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旬報」의 주임으로서 조선의 조정에 교제도 폭넓게 있었고, 때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변의 실제 상황에 즈음해서도 그 일의 원인을 推究할 방법이 부족했었는데, 취재 중에 스스로도

조리 정연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씨(이노우에)의 紀事 및 직접 들은 이야기의 대략을 아래에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考按을 제공하고자 한다.

⑤ 씨(이노우에)는 이번 달(12월) 7일 경성의 난을 피해 동 8일에 제물포로 내려왔고, 동 11일 치토세마루(千歳丸)[5일 인천에 입항 한 것]에 탑승하여 동 13일에 나가사키(長崎)에 도착. 그곳에서 겐카이마루(玄海丸)로 같은 날 나가사키를 출발하였으며, 고베(神戸)로부터 와카우라마루(和歌浦丸)로 지난 오전 1시에 요코하마(横濱)에 도착하였고, 아침 첫 기차로 귀경했다. ⑥ 관계되는 바의 기사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지만, 빗발치는 총탄의 화염 속에서 기입했기 때문에 종이가 형클어지고 흩어져(錯亂散逸) 아래에 그저 그 대략을 기술하였고, 또 상세한 것은 씨(이노우에)의 기억으로 청취하여 계속하여 보도할 것이다.<sup>69)</sup>

위 [자료3]의 밑줄 ④로부터 이노우에 카쿠고로가 「漢城旬報」로 인해 조선에 건너가게 되었으며,<sup>70)</sup> 이 신문의 주임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당시 일본 내에서는 갑신정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는데, 이노우에가 직접 갑신정변을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정변에 대하여 조리 정연한 점도 있어 그가 기록한 ‘紀事’ 및 직접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紀事’가 있었다는 점으로 이것은 정변 당시에 직접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밑줄 ⑥에서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기입했기에 기록한 종이들이 형클어지고 흩어졌다는 것으로부터도 『遭難記事』의 제1차 필사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 제시한 필사본이 당시의 제1차 필사본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에 보이는 ‘紀事’라는 것과 본고의

69) 「時事新報」(「井上角五郎氏歸京」, 1884년 12월 19일자).

70) 이노우에 카쿠고로의 「漢城旬報」와 관련된 행적과 영향에 대해서는 稻葉継雄, 「井上角五郎と『漢城旬報』『漢城周報』-ハングル採用問題を中心に」(『文藝言語研究-言語篇』12, 筑波大學文藝・言語學系, 1987), 209-225쪽. 참조.

필사본 『遭難記事』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필사본 『遭難記事』를 보면,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문장의 순서가 통상적이지 않거나(추후에 기록을 정리하면서 번호를 기입한 것으로 보임),<sup>71)</sup> 또는 ‘東門(レ)大通り’(원래는 ‘東大門通り’가 정상)라고 뒤에서부터 읽는 표기를 기입하고 있다.<sup>72)</sup>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時事新報」와 비교해 볼 때, 「紀事」의 기록, 즉 필사본 『遭難記事』가 토대가 되고 있지만, 밑줄 ㉠에서와 같이 「時事新報」에 게재할 당시에는 이노우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의 대략을 기사로 게재했다고 했기 때문에 필사본 『遭難記事』와 「時事新報」에 실린 『遭難記事』는 날짜와 시간, 또는 내용과 용어의 표기에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술한 [자료2-1]과 [자료2-2]의 필사본 『遭難記事』의 표지를 보면, 이 기록은 이노우에 카쿠고로와 이마이즈미 히데타로(今泉秀太郎)<sup>73)</sup> 두 명의 연명으로 작성되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실제 작성한 것은 이노우에로 보인다. 이유는 『遭難記事』 전체의 서술 화자가 “소생 등이 생각해 보니” 등의 표현으로 볼 때 이노우에 단독으로 되어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紀事」라고 하여 이것을 작성한 사람도 이노우에 본인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마즈미는 이야기로 들었던 정보를 제공해주는 위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71) 각주 53)번 참조. 물론, 정변을 피해 인천으로 도망치는 상황에서 기록한 「紀事」라고 볼 수 있는데, 철수한 일본인들은 12월 8일 “인천항 제물포의 거류지에 도착하여 타케조에(竹添) 공사 이하 일본공사 관원은 영사관에 체재하였고, 이노우에 등은 미즈비시(三菱) 기선숙(汽船宿)의 후쿠시마 토모키치(福島友吉)의 숙소에 머물렀다.”는 기록을 볼 때 대부분은 12월 8일 이후부터 인천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72) 『遭難記事』(1884년 12월 7일조).

73) 이마즈미 히데타로(今泉秀太郎, 1865~1904)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조카로 근대 일본의 화가·만화가이다. 1891년 4월 27일 「時事新報」에서 일본 처음으로 ‘漫畫’라는 용어를 사용한 인물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井上角五郎氏歸京」의 밑줄 ㉞로부터 이노우에의 귀국길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8일에 제물포→11일 치토세마루 승선→13일 나가사키 도착→13일 겐카이마루로 나가사키 출발→고베에서 와카우라마루에 탑승하여 출발→18일 오전 요코하마 도착→18일 아침 첫차로 도쿄 출발했다고 한다. 이것은 필사본 『遭難記事』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경로는 11일 오전 7:30분 치토세마루(千歳丸)에 탑승하여 인천 출발→13일 오전 9:30분 나가사키항 도착→겐카이마루(玄海丸)에 환승하여 나가사키 출발→고베(神戸)에서 와카우라마루(和歌浦丸)에 환승하여 출발→18일 오전 1시 요코하마(横濱) 도착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두 자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요코하마에서 18일 아침에 첫 기차를 타고 출발하여 18일 오전 중에 도쿄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時事新報」의 취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時事新報」에 『遭難記事』의 첫 기사가 게재된 것이 12월 19일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遭難記事』의 사료적인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해보겠다.

첫째, 『遭難記事』의 원사료인 필사본이 발견되었다는 점에 우선적으로 그 역사학적인 측면의 의의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료는 1884년 12월 19일에 「時事新報」에 기사로 게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알려진 것은 2007년에 하라다 타마키(原田環)가 번각하여 소개한 이후의 일이다. 더군다나 하라다가 소개한 『遭難記事』와 본고에서 소개한 필사본 『遭難記事』는 그 내용이 약간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필사본 『遭難記事』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연히 일본과 마찬가지로인 2007년에 정암 김승제 선생이 전술한 「갑신정변 당시 『遭難記事』」에 우정 관련을 소개하기 이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료의 전체적인 원문과 번역문, 『遭難記事』의 사료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둘째, 필사본 『遭難記事』를 통해 작성 당시 기록자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時事新報」에 실린 기사의 오류, 또는 필사본 『遭難記事』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필사본 12월 8일조에는 일본군함이 도착함을 기술하고 있는데, 필사본에는 ‘日本軍艦’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時事新報」에는 ‘日本軍艦日進艦’이라고 명확하게 기사화되고 있다. 그 외에 필사본 『遭難記事』와 「시사신보」를 비교해보면, ‘之を→これを’, ‘報する→報ずる’ 등 단순한 문자 표기의 차이가 상당수 보이고 있으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어순의 변동, 내용의 삭감 등 여러 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 본고에서 번역문과 원문 탈초문을 게재하면서 언급했지만, 대표적인 것만 간추리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필사본 『遭難記事』와 「時事新報」, 『遭難記事』의 차이점

일자와 구분	필사본 『遭難記事』	「時事新報」의 『遭難記事』
12월 4일	京城市兩三ヶ所	京城市中兩三ヶ所
	賊徒數十	賊徒數十人
	外門にて <sup>レ</sup> 74)	門外にて
	蹶き倒れたれば	躓き倒れたれば
	後其 <sup>レ</sup>	其後
	これに次きて出てし者は	これに次きて出でし客は
	景龍宮	景祐宮
12월 5일	此時、國の側に	此時、國王の側に
	内外官柳在賢 <sup>レ</sup>	外内官柳在賢
12월 6일	其甚タしきに至ては	其甚しきに至つては
	昨夜閑内支那兵營に	昨夜内支那兵營に
	校將袁世凱は <sup>レ</sup>	將校袁世凱は
	大關の西門より	大關の東門より
	凡そ數十名は	凡そ數十人は
	貽すべからず。	貽す可らず。
	其備兵と共に	其警備兵と共に
12월 6일	秋舊曆十一月一日より	秋舊曆十月一日より

12월 7일	東門 <sup>レ</sup> 大通り	東大門通り
	外に田中某あり。	外に田村某あり。
	川上是一郎	川上立一郎
	手銃 <sup>レ</sup> 二人は	銃手二人は
	終に恙なく	恙なく
	直接或は教唆下手せし	直接或は間接に教唆下手せし
12월 8일	(처음부분)八日	(처음부분)十二月八日
	日本軍艦	日本軍艦日進艦
	其信從にこれを	其信從を得、終にこれを
12월 9일	昨今の變動	昨今の騒動
12월 10일	本多收之助	本多收之輔
	別なく一切焼き	別なく一切焼き拂ひ
	去る六日の夜、	今日頗る斷腸の一話を聞き得たり。夫は別事にあらず。去る六日の夜、
	辱を忍ひ	必ずや辱を忍び
12월 11~18일	同十一日午前七時三十分	同十一日午前七時二十分
12월 정변으로 살해된 일본인	원문 있음.	원문 없음.

이러한 표기의 차이를 보면, 필사본 『遭難記事』가 위급한 상황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던 오류를 「時事新報」에 게재했을 때에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고종이 황제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왕을 황제라고 칭한 1897년 이후이겠지만, 1884년의 시점에서도 당시 이노우에가 ‘皇后’와 ‘皇太后’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sup>75)</sup> 또 「時事新報」의 『遭難記事』에서도 그대로 ‘皇后’와 ‘皇太后’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1897년 이전부터도 조선의 ‘황실’에 대한 호칭의 예우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遭難記事』를 통해 당시 일본은 개화와 세력을 옹호하는 입

74) ‘レ’ 부호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의 표기로 밑에서부터 읽는다는 표시이다.

75) 필사본 『遭難記事』 12월 6·10일조.



장을 취함과 동시에 친청 세력들을 비난하고 있었기는 하지만,<sup>76)</sup> 당시 타케조에 공사는 일본군을 동원하여 정변에 직접적으로 원조<sup>77)</sup>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접적인 원조나 조선에 대한 침탈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술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은 그들이 정치적인 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기록의 행태는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측의 피해와 중국병사에 의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인천에서 탈출할 때 이용한 치토세마루(千歳丸)에 숨겨서 탈출시킨 갑신정변의 주역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sup>78)</sup> 이것은 『遭難記事』의 12월 10일조의 기록에서 홍영식의 참수를 언급 한 후,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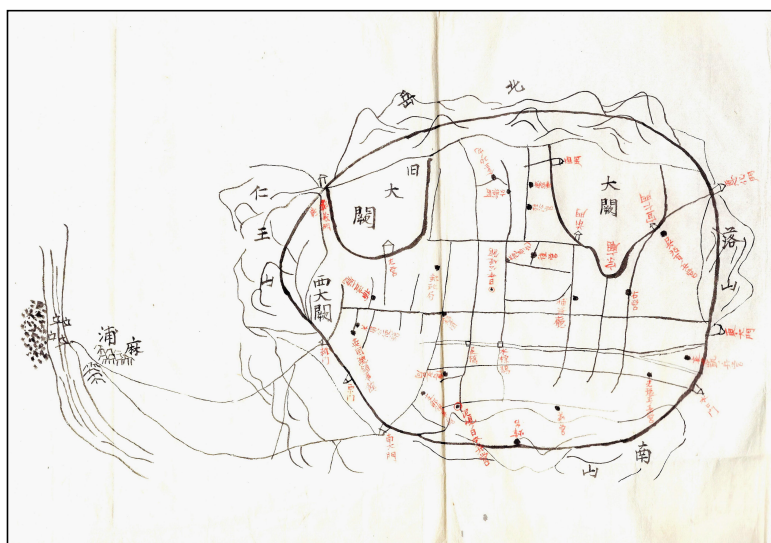
76) 『遭難記事』(1884년 12월 5일자). 여기에서 개화파에 대해서는 “그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단결력이 강하고, 실로 한 당으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하였고, 그 반대 세력인 사대당 또는 사대파에 대해서는 “그 수가 많아 조선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이 당에 속해 있지만, 별로 결속력이 없어 격언에 비교하자면, 이른바 ‘아이들을 데리고 참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심지어는 당 내에서 늘 알력이 일어나 상호간에 사적인 권리로 다투기가 일쑤다.”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77) 『勉菴集』, 부록 제2권, 갑신년(1884) 선생 52세. “왜적 타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가 우리 賊臣 박영효·김옥균·홍영식·서광범·서재필 등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을 침범하여 주상을 모해하고 재상을 살육하므로 大駕가 播遷하니, 국가의 위급존망이 매우 긴박하였다. 선생이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말에 멧을 메울 겨를이 없이 도보로 입성하여 밖에서 문안하였다. 얼마 뒤에 난리가 평정되어서 돌아왔다.”라는 부분으로부터도 타케조에의 직접적인 갑신정변 원조를 확인할 수 있다.

78) 당시, 조선정부는 타케조에 공사에게 이들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다. 결국, 김옥균 일행은 타케조에의 지휘 하에 치토세마루 선저부분에 있는 화물 창고에 숨어서 일본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이노우에 카쿠고로는 일본공사였던 타케조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개화당 세력의 탈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大畑篤四郎, 「金玉均の政治亡命と日本」(『早稲田法學』51, 早稲田大學法學會), 138-141쪽 참조.

한 박영효는 그 후 사대당 때문에 붙잡혔고, 김옥균은 아직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풍설이다.”라고 이들의 소재에 대한 확실한 언급을 피했던 것으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遭難記事』는 일본 우월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2월 8일자의 기록을 보면, 임오군란 이후에 “조선인은 일본을 심하게 두려워하였으나, 중간 무렵부터 크게 일본 문물을 우러러 사모하였다. … 일본인의 착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사랑하여 하위의 상·공·사역(商·工·使役)에 이르러서는 일본인은 거칠고 난폭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고, 신의 없는 중국인을 미워하여 실로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인에 대해 ‘우의(友誼)의 념(念)’을 생기게 하는 것은 당시 이 나라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는 바이다. 지난 11월 2일, 타케조에(竹添) 공사는 국왕을 알현하여 상금 50만불 중에서 40만불을 반납했기 때문에 조선관민은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였다. 그렇기에 이번에 일본 병사가 중국 병사에게 공격받은 것을 듣고 나서 조선인도 또한 일본인의 집을 불태워 훼손하고, 또 일본인으로 보이면 남녀의 구별 없이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민간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 속에는 조선과 중국에 대한 우월주의가 잠재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선 병사인 忠義兵을 비판하면서, “한 마리의 개가 허공에 짖으니, 만 마리의 개가 이를 따라하는 것이다. 실로 愚民의 시기에 편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조선인도 또한 일본인을 해치고 있다고 하지만, 제일 앞에서 부르짖는 자는 忠義兵이라고 한다.”고 하여 조선인을 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일본 우월주의와 조선 멸시관을 엿볼 수 있다.



[자료4] 『遭難記事』 뒷부분에 첨부된 「경성지도」

다섯째, 『遭難記事』에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는 경성지도([자료4] 참조)의 구체성과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의 탈출 경로(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각 궁과營, 각국의 공사관, 경성 내의 대문, 건물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알려져 있었지만, 원세개의 병영, 張光前(지도에는 ‘光張正ノ兵營’), 吳兆有의 병영, 일본의 병영 및 대원군 납치되기 이전까지 머물고 있었던 저택(대원군은 1885년 8월 귀경) 등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신정변 당시 중국군과 일본군의 움직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갑신정변 당시 민간인 기록으로서 「漢城旬報」를 발간했던 이노우에 카쿠고로의 필사본 『遭難記事』의 발굴 경위와 그 사료적 특징 및 「時事新報」에 게재된 『遭難記事』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점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사본 『遭難記事』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역사학계에 처음으로 원문의 탈초문과 번역문, 그리고 그 가치를 발굴하여 소개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기록은 갑신정변에 관한 다른 어떤 민간인의 기록보다도 당시 일본공사관 관원과 경성 재주 일본인들의 탈출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 갑신정변과 일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료적 가치성이 내재되어 있다.

둘째,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필사본 『遭難記事』는 갑신정변 당시 민간인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는 가장 빠른 시기의 자료이며, 더욱이 「時事新報」를 통해 갑신정변을 가장 먼저 일본 국내에 알린 정보 루트로서의 역할도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이 필사본 『遭難記事』는 「時事新報」에 실린 『遭難記事』의 원 사료라는 점이다. 이것은 「時事新報」에 「井上角五郎氏歸京」의 기사가 실리면서 이노우에 카쿠고로가 경성을 탈출할 때 직접 쓴 ‘紀事’와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바로 「時事新報」의 『遭難記事』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時事新報」에서 언급한 ‘紀事’가 바로 본고에서 소개한 필사본 『遭難記事』라고 판단된다.

이상 필사본 『遭難記事』에 대한 간단한 정리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필사본 자료와 그간에 알려진 다른 자료들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갑신정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다면, 본고는 사료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만 언급했다는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부족함은 앞으로 여러 선후배 연구자들에 의한 심도 깊은 연구로 해결되리라 기대해보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金鳳珍, 「朝鮮の開化と井上角五郎-日韓關係史の「脱構築」を促す問題提起」  
(『東洋文化研究紀要』140,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2000).
- 김승제, 「갑신정변 당시 『遭難記事』」(『우표』, 2007년 11월호).
- 김승제, 『한국우편사료집』(으뜸출판사, 2013).
- 이현중, 「甲申政變 當時 서울과 駐韓日公館 撤收實記」(『亞細亞學報』1, 亞細亞學術研究會, 1965).
- 大畑篤四郎, 「金玉均の政治亡命と日本」(『早稻田法學』51, 早稻田大學法學會).
- 稻葉継雄, 「井上角五郎と『漢城旬報』『漢城周報』-ハングル採用問題を中心に」  
(『文藝言語研究-言語篇』12, 筑波大學文藝・言語學系, 1987).
- 原田環, 「翻刻 井上角五郎・今泉秀太郎의 甲申政變遭難記」(崔吉城/原田環,  
『植民地の朝鮮と台湾-歴史・文化人類學的研究』, 第一書房, 2007).
- 「時事新報」(「井上角五郎氏歸京」, 1884년 12월 19일자).
- 「朝鮮事變」(「時事新報」, 1884년 12월 19·20일자)
- 『勉菴集』부록 제2권(갑신년[1884] 선생 52세조).
- 『遭難記事』(필사본, 우편사연구가 김승제 소장).

## 【日文抄録】

# 甲申政変体験記『遭難記事』の 筆写原本の発掘と史料的特徴

申東珪

本稿は甲申政変の当時に『漢城旬報』を發刊した井上角五郎の筆寫本『遭難記事』の發掘経緯とその史料的特徴及び「時事新報」に掲載された『遭難記事』との差異を考察したもので要約すると、次の通りになる。

第一に、『遭難記事』の筆寫本は今まで全く知られていなかったが、本稿では歴史學界で初めてその原文の脱草文と翻譯文、そしてその価値を發掘して紹介したという点に意味がある。この記録はその当時のいかなる民間人の記録よりも日本公使館の官員と京城在住の日本人等の脱出を生々しく記録しており、甲申政変と日本との關係を把握するためにもっとも重要な基礎資料であるという史料的价值が内在されている。第二に、この筆寫本の『遭難記事』は甲申政變の当時に民間人が直接記録したものとしてはもっとも早い時期の史料であり、さらに「時事新報」を通して甲申政變をいち早く日本國內に知らせた情報ルートとしての役割も果たしていた。第三に、筆寫本『遭難記事』は「時事新報」に掲載された『遭難記事』の原史料という点である。これは「時事新報」に「井上角五郎氏歸京」の記事が掲載された際に、井上角五郎が京城を脱出する時に直接記した「紀事」と彼に直接聞いた話がまさに「時事新報」の『遭難記事』であ

ると明らかにしていることから分かる。

【キーワード】

甲申政變, 遭難記事, 井上角五郎, 時事新報, 漢城旬報